주체91(2002)년

6.15주간

6.15Weekly
제41호 (3월 29일~4월4일)



노작 -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4월, 한반도가 움직인다

개꿈에 취해 허우적거리는 이회창

필요없어!

나가!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담화

미국의 대북핵전쟁도발광증을 규탄

주체 91년 태양절을 뜻깊게 맞이할 데 대하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예술론을 깊이 연구하자!

6.15공동선언관철투쟁을 반미투쟁과 밀착시켜 벌이자

6.15주간

6.15WEEK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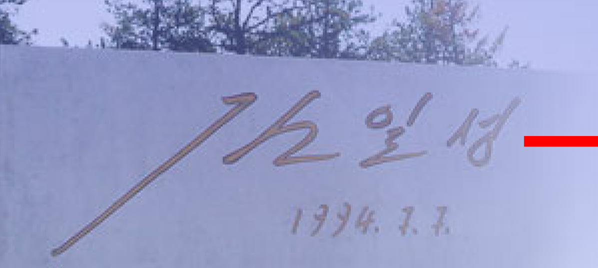
제41호 (3.29~4.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1993년 4월 6일



근 반세기에 걸치는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의지이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전민족이 대단결하여야 한다.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무산자이건 유산자이건, 무신론자이건 유신론자이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모두다 나라의 통일과 통일된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함으로써 민족분열을 끝장내고 통일된 7천만 겨레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떨쳐야 한다.

1.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 당, 각 파,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범민족통일국가는 북과 남의 두 지역 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연방국가로 되어야 하며 어느 대국에도 기울지 않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블록불가담적인 중립국가로 되어야 한다.

2.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전민족은 각자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연결시켜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생명으로 지키려는 하나의 뜻으로 단결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가지고 민족의 주체의식을 좀먹는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배격하여야 한다.

3.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침해하지 말고 함께 진보와 번영을 누려가야 한다. 지역적, 계급적 이익에 앞서 전민족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하며 모든 노력을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는 데 기울여야 한다.

4. 동족사이에 분열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대결을 추구하거나 조장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형태의 정쟁을 중지하고 비방중상을 그만두어야 한다. 동족끼리 적대시하지 말고 민족의 힘을 합쳐 외세의 침략과 간섭에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을 위협하지 말아야 하며 침략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상대방에 자기의 제도를 강요하려 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을 흡수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5.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여야 한다.

6.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한다.

통일 논의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정치적 반대파라고 하여탄압, 보복, 박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친북, 친남을 시비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정치범을 석방, 복권시켜 조국통일위업에 함께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

7.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데 이롭게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통일되기 전에는 물론, 통일된 후에도 국가적 소유, 협동적 소유,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개인 또는 단체의 자본과 재산, 외국자본과의 공동이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과학, 교육, 문학, 예술, 언론, 출판, 보건, 체육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명예와 자격을 인정하며 공로자가 받고 있는 혜택을 계속 보장하여야 한다.

8. 접촉, 내왕, 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하여야 한다.

접촉과 내왕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을 제거하고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내왕의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각 당, 각 파, 각계각층에게 동등한 대화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쌍무적, 다무적 대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9.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연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에서 조국통일에 유익한 것은 편견없이 지지성원하고 해로운 것은 함께 배격하여야 하며 각자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서로 보조를 같이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와 각계각층의 동포들이 조직적으로 연합하여야 한다.

10.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 애국열사들과 그 후대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야 한다. 지난 날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들도 과거를 뉘우치고 애국의 길에 나서면 관용으로 대하며 조국통일에 이바지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5. 백두산밀영

≪세기와 더불어≫ 제5권 13장 백두산으로



...

백두산을 타고앉아야만 민족의 모든 역량을 항쟁의 마당으로 불러낼 수 있고 그 항쟁의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사상은 1930년대 전반기의 항일혁명투쟁이 가져다 준 총화이며 응당한 귀결이기도 하였다.

...

나는 되골령을 넘어서자 본래의 행군계획을 변경시켜 압록강연안을 에돌아 백두산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하였다. 국경지대의 인민들도 만나보고 국내동포들에게 우리의 총성도 들려주자는 것이었다.

우리가 처음으로 들린 곳은 덕수골이었다. ... 덕수골은 장백의 모든 주민지구 가운데서도 농촌혁명화가 가장 잘된 고장이었다. 그곳에는 3.1 인민봉기 이후 독립운동자들이 개척해 놓은 반일애국투쟁의 전통과 그 투쟁을 통해 끊임없이 단련되어온 믿음직한 군중토대가 있었다. ... 우리는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계몽되고 교양되고 혁명화된 대중적 지반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부대가 덕수골 지경에 들어서자 김주현은 선발대로 나와 활동할 때 믿음만한 인물로 점찍어 두었던 염인환노인의 집으로 나를 안내하였다.

어느 구석을 둘러보나 가난이 푹 배어 있는 촌의원네 집이었다. 침술이 능하기로 소문나서 덕수골 일판에서는 물론이고 장백이나 임강, 지어는 압록강 건너에서도 발구나 달구지로 모셔가기도 하는 의원이라지만 약값의 본전도 걷어들이지 못해 이 집의 안주인은 끼니때마다 빈바가지를 치마폭에 감춰들고 쌀동냥을 다니는 형편이라 하였다. 그전날 의원간판을 내걸었던 팔도구와 무송 시절의 우리 집을 방불케 하는 살림이었다.

염노인은 자청하여 내 손맥을 짚어보고 지나치게 과로하고 식음을 소홀히 한탓에 신기가 허해졌다면서 산삼 한뿌리를 내놓았다. 만강의 허락여 노인도 우리와 헤어질 때 몸보신에 쓰라고 하면서 장철구와 백학림에게 산삼 몇뿌리씩을 쥐어주었다고 하였다.

≪일본군과 만주국군이 무송에서 김장군이 인솔한 항일연합부대에 얻어맞고 수백명이나 북망산귀신이 되었다는데 그게 정말이웨까?≫

염노인이 나에게 한 질문이었다. 무송현성 전투소식이 벌써 이 고장에도 파다하게 퍼진 모양이었다.

내가 정말이라고 하자 노인은 무릎을 철썩 쳤다.

≪됐수다. 이제는 조선이 살아났수다!≫

우리에게 하루밤의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한끼의 감자보리밥을 내놓은 것 때문에 훗날 염인환 노인은 이도강경찰서에 끌려가 학살되였다. 노인이 당한 불행을 상기하느라면 지금도 살이 떨린다. 언제인가 소부대를 데리고 그 지방을 지나게 된 기회에 나는 일부러 염노인의 묘소를 찾아서 제주를 붓고 절을 드리였다.

다음날 우리는 새벽이슬을 걷어내며 대덕수로 향하였다. 발밑으로 마을이 굽어보이는 등성이에서 삶은 감자 몇알씩으로 대강 조반을 굼때였다. 나는 이동학중대장에게 깃발대를 준비하였다가 대덕수로 내려갈 때 대열선두에서 깃발을 높이 들고 나팔소리를 내라고 지시하였다. 기가 눌려 사는 우리 인민들에게 조선인민혁명군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를 맞이한 대덕수 사람들의 기쁨과 놀라움은 한량없었다. 신식보총에 기관총까지 그쯘하게 갖춘 수백명의 조선군대가 대낮에 그것도 깃발을 들고 천하가 들썩하게 나팔소리까지 내며 나타나기는 마을이 생긴 이래 처음이라고 하였다.

나는 이 고장 사람들에게 만강에서와 같은 연극공연을 펼쳐보일 작정으로 가설무대를 준비시켰다. 그러나 점심이나 지내고 하려던 공연계획은 실현할 수 없게 되였다. 점심상을 받아놓고 수저를 들려는 데 불시에 적들이 밀려들었다. 그 바람에 누렇게 익어가는 보리밭을 사이에 두고 싸움이 벌어졌다.

다 익은 곡식이 피해를 당할까봐 마음쓰이던 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적들은 보리밭 맞은편에서 고랑을 따라 접근해왔다. 나는 적들이 보리밭을 거의다 벗어져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사격신호를 울리었다.

우리 대원들이 그 싸움을 솜씨있게 치르었다. 적들은 수십명의 사상자를 내고 이도강쪽으로 퇴각하였다. 그것이 장백에 나와서 진행한 첫 싸움이였다. 대덕수에서 울린 첫 총성으로써 우리는 조선인민혁명군이 백두산에 나왔다는 것을 조국인민들에게도 알려주고 적들에게도 알려주었다.

마을은 명절처럼 흥성거리었다. 이웃마을사람들까지 대덕수에 모여들어 우리의 승전을 축하해 주었다. 인민들은 감자떡을 치고 농마국수를 눌러 우리를 환영하였으며 우리 대원들은 춤과 노래로 그에 답례하였다. 나는 선동연설을 하였다.

그 연설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

팔자수염의 한 노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장군이 백두산에서 ≪조선독립을 위해 싸울 생각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다 모여라≫하고 소리만 쳐주시오. 그러면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거우다. 나도 비록 늙고 허리굽은 몸이지만 아무 시중이건 다 들 수 있수다.≫

후에 알고보니 그 고무적인 말을 해 준 노인이 소덕수의 ≪꼽새영감≫이였다.

… 간단한 연예공연과 연설을 마친 다음 나는 부대에 철수명령을 내리었다. 마을사람들은 정을 붙이자마자 이렇게 훌쩍 떠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하루밤만이라도 묵어달라고 간청하였다. 나는 부득이 떠나야 할 까닭을 설명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 적들이 증원대를 끌고 어느 시각에 달려들지도 모르니 우리가 자리를 떠야 마을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우리가 떠날 때 길잡이는 다름아닌 ≪꼽새영감≫이 하였다.

나는 김득현노인에게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조국광복회 창립선언≫이 등사되어 있는 소책자를 주었다. 우리가 압록강 연안에 나와서 이 소책자를 준 사람으로는 그가 첫번째이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덕수지구에는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이 생겨났다.

…

소덕수 등판에서 숙영한 이튿날 우리는 부대를 마등창수림속에 이동시키고 대원들을 휴식시켰다. 나도 풀밭에 누워 책을 보다가 굳잠이 들었는데 총소리가 났다. 15도구 방향과 이도강 방향에서 밀려온 적들이 남북양쪽에서 거의 동시에 달려들었다. 무성한 숲은 적아를 구분하기 어렵게 하였다. 만일 우리가 감쪽같이 빠져나가면 적들의 협공을 저들끼리의 골육상쟁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우리는 마등창수림에서 슬쩍 빠져나와 15도구골 등판으로 올라갔다. 그 등판에서 적들끼리 싸우는 꼴을 구경하였다. 그것이 세칭 소덕수 전투라고 하는 마등창망원전투이다.

그날 적들끼리의 맹렬한 싸움이 서너시간쯤 실히 걸렸던 것 같다. 구경군들이 지루할 정도였다. 적들은 이렇게 장시간 싸우다가 이도강쪽 패가 정 못견디겠던지 먼저 퇴각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소리를 듣고서야 15도구쪽 패도 제편끼리 싸운 줄 알았는지 사격을 중지하였다.

수백명의 유격대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 온데간데 없으니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닌가?

이 불가사의한 문제에 대한 해명을 적들은 우리의 ≪둔갑술≫에서 찾은 것 같다. 우리가 ≪둔갑술≫을 써서 ≪승천입지≫하고 ≪신출귀몰≫한다는 소문이 국경지대에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한 것이 이 소덕수 전투가 있은 때부터였던 것 같다.

그날 적들은 답기가 모자라 신창동의 집집마다에서 문짝이라는 문짝은 다 뜯어다가 저들의 시체를 거두어가지고 황황히 꽁무니를 뺐다. 그 통에 신창동 사람들은 한동안 문대신 가마니짝을 달고 지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대덕수와 소덕수에서 인민혁명군이 울린 총소리는 장백과 그 대안의 조국인민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전투가 끝난 다음 우리가 감자밭이 결딴난 데 대하여 걱정하자 신창동의 한 농민은 이렇게 말하였다.

≪감자밭은 결딴났지만 악귀같은 왜놈군대들이 저렇게 죽탕이 되어 나딩구는 걸 보니 풍년든 감자밭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쁘오다.≫

덕수골 일대에서는 그후 여러명의 청년들이 입대를 탄원하였다. 그들의 입대는 장백지방에서 혁명군 대오를 급격히 확대시킨 대대적인 참군운동의 서막으로 되였다.

인민혁명군의 장백진출과 군사적 위세 앞에서 적들은 대경실색하였다. 장백지방 경찰기관들에서는 경찰들이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공직을 회피하는 이직은퇴바람이 불었다. 적들의 통치체계에서는 심한 혼란이 일어났다. 이도강에서는 집단부락 출입도 앞문으로가 아니라 뒷문으로 한다고 하였다.

우리는 장백땅에 와서 군사작전만 한 것이 아니였다. 대중을 교양하고 결속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도 진행하였다. 우리의 정치공작원들에 의하여 덕수골, 지양개골 일대에서는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이 도처에 꾸려졌다.

국내에서도 조직들이 꾸려지기 시작하였다.

백두산 주변의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한 그 조직들은 새로 창설되는 근거지의 믿음직한 정치적 지반으로 되였다.

우리는 소덕수 전투가 있은 다음에도 압록강 연안의 여러 마을들을 돌면서 장백현 15도구 동강, 13도구 용천리, 20도구 이종점 등 곳곳에서 연속 전투를 벌였다. 압록강 연안 일대는 벌둥지를 쑤셔 놓은 것처럼 소란스러웠다.

우리가 우회노정을 택하면서 세웠던 목적은 원만하게 달성된 셈이였다. 이제는 백두산으로 들어가 보금자리를 틀 때가 되었다. 나는 김주현과 이동학을 앞세우고 백두산밀영 후보지로 향하였다. 부대의 기본지휘성원들과 경위대 그리고 일부 전투중대들이 우리와 동행하였다. 나머지 인원들에게는 장백 쪽에서 좀더 소란을 피우라는 과업을 주어 떨구어놓았다.

김주현, 이동학, 김운신 등에 의하여 탐색된 소백수골은 우리가 백두산 지구에 잡아놓은 국내의 첫 밀영 후보지였다. 소백수골에서 서북방향으로 40리 가량 되는 곳에는 백두산이 솟아 있고 20리 쯤 되는 지점에는 선오산, 동북방향으로 15리 정도 떨어진 수림속에는 간백산이 각각 솟아있었다. 소백수골 뒤에 길게 가로

놓여있는 산은 사자봉이라고 불렀다.

우리가 부대를 이끌고 소백수골로 나온 것은 집을 떠났던 주인이 오래간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온 것과 같은 경사였다. 항일혁명이라는 큰 역사의 흐름으로 볼 때에는 활동중심을 동만에서부터 백두산으로 옮겼다고 할 수 있다.

…

백두산밀영지에 처음으로 들어온 다음날 나는 지휘성원들과 함께 밀영 후보지를 돌아보았다. 선발대 동무들이 내정해 준 병영위치들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간부회의를 하였다. 이 모임에서는 남호두를 출발하여 백두산에 이르기까지의 원정에 대하여 총화를 지었다. 백두산을 타고앉아 해나가야 할 사업에 대하여서도 진지하게 토의하고 분공도 조직하였다.

그 모임에서 토의되고 모임 뒤에 곧 실천행동으로 옮겨진 문제를 한마디로 집약하면 우리 앞에 긴절한 과업으로 나서고 있는 백두산 근거지 창설을 적극 다그치는 것이었다. 그것은 밀영건설과 조직건설이라는 두가지 의미를 포괄하고 있었다. 즉 백두산 근거지를 창설한다는 것은 백두산 지구에 밀영들을 건설한다는 것과 백두산 기슭의 주민지대들에 지하혁명조직들을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1930년대 전반기에 우리가 동만에서 창설하였던 유격구와 후반기에 백두산에 나와서 새로 창설한 백두산 근거지 사이에는 내용상에 있어서나 형태상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전반기의 동만유격구는 고정된 유격구를 유격활동의 본거지로 삼은 근거지로서 눈에 보이는 공개적인 혁명근거지였다. 그러나 우리가 후반기에 새로 창설한 백두산 근거지는 은폐된 밀영들과 지하혁명조직들에 의거하여 군사정치활동을 전개한 보이지 않는 혁명근거지였다.

전반기에는 근거지 안의 인민들이 인민혁명정부의 시책 속에 살았고 후반기에는 지하조직망에 망라된 인민들이 표면상으로는 적의 통치를 받았으나 안속으로는 우리의 지령과 노선에 따라 움직이었다.

전반기에는 유격구 사수를 위한 방어에 큰 힘을 넣어야 하였지만 후반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유격활동을 광활한 지역에서 벌려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 다시말해서 우리는 근거지 형태를 바꿈으로써 주동적인 공격자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근거지를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우리의 활동영역은 그만큼 더 넓어지게 되어있었다.

우리는 백두산밀영을 중심으로 장백의 넓은 지역과 장차로는 백두고원, 개마고원, 낭림산줄기로 뻗어나가면서 근거지를 국내 종심깊이 확대하며 더 나아가서는 무장투쟁의 불길을 북부조선으로부터 중부조선을 거쳐 남부조선에 이르는 전국적 판도에로 번져가게 하는 동시에 당조직건설과 통일전선운동을 확대발전시키고 전민항쟁준비도 강력히 추진시킬 작정이었다.

밀영망 창설과 지하조직망 건설이 이처럼 우리들의 존망과 생사운명, 나아가서는 항일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초미의 문제로 되어있은것만큼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밀영건설을 1차적 과제로 내세우고 이 과업을 각 부대에 맡기었다. 먹고 입는 문제의 해결과제는 김주현에게 맡기었다. 밀영 설치와 운영을 위한 이 두가지 문제는 통속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식의주문제이기도 하였다.

지하조직망 건설을 방조해 줄 인재를 적극 탐색하며 우리 인민의 사기를 북돋아주어 그들이 광복성업에 발벗고 나서도록 필요한 전투활동을 진행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 두가지 과업은 이동학의 중대에 맡겼다.

지휘관들은 백두산 근거지 창설을 위한 분공수행에 지체없이 착수하였다. 김주현과 이동학이 중대를 이끌고 떠나갔다. 그밖의 여러 사람들에게도 개별 임무를 주어 공작지로 떠나보낸 다음 나도 경위대와 7연대의 일부 성원들을 데리고 곰의골로 향하였다. 황공동부락에서 갈라진 부대의 기본역량과 만나게 되어있는 곳이 곰의골이었다.

…

백두산밀영은 조선혁명의 책원지인 동시에 심장부였으며 우리의 중핵적인 작전기지, 활동기지, 후방기지였다.

바로 그 백두산밀영으로부터 미구에 북부, 중부 조선의 곳곳에 부채살같이 뻗어나가면서 수많은 비밀근거지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 밀영들에서 삼천리 방방곡곡에 혁명의 불길을 지피기 위하여 권영벽, 김주현, 김평, **김정숙**, 박록금, 마동희, 지태환 등의 수많은 정치공작원들이 전국각지로 떠나갔으며 또한 백두산으로 우리를 찾아왔던 이제순, 박달, 박인진 등의 수많은 인민의 대표들이 새로운 혁명의 불씨를 안고 다시금 인민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우리의 부대들이 원쑤들을 찾아 출전의 길을 떠났다. 혁명의 운명과 직결된 크고작은 모든 일들이 거의 전부 백두산밀영에서 구상되고 설계되고 행동에 옮겨졌다.

백두산밀영망에 속한 위성밀영들은 조선쪽에도 있었고 중국쪽에도 있었다.

사자봉 밀영, 곰산 밀영, 선오산 밀영, 간백산 밀영, 무두봉 밀영, 소연지봉 밀영 등은 조선쪽에 꾸려놓은 밀영들이었으며 곰의골 밀영, 지양개 밀영, 이도강 밀영, 횡산밀영, 이명수 밀영, 부후물 밀영, 청봉 밀영들과 무송지구의 여러 밀영들은 서간도쪽에 꾸려놓은 밀영들이었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면서 그 모든 밀영들은 다 이용하였다.

백두산 지구의 밀영들은 각이한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였다. 순수한 비밀병영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재봉소나 무기수리소, 병원 같은 후방밀영의 역할을 한 것도 있었으며 공작원들의 중간 연락소나 숙영소 역할을 한 것도 있었다.

백두산밀영망의 심장부는 소백수골의 밀영이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우리는 소백수골의 밀영을 ≪백두산 1호 밀영≫이라고 불렀다. 지금은 ≪백두산밀영≫이라고도 부르고 ≪백두밀영≫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최대한의 안전과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기에는 사령부 직속부서 성원들과 경위대를 포함한 일부 골간부대만 있게 하고 출입도 엄격히 제한단속하였다. 그 당시 우리와 함께 상시적으로 지내지 않는 부대나 개별적 사람들이 사령부에 찾아왔을 때에도 소백수골의 밀영에서 만나지 않고 2호 밀영(사자봉 밀영)에 나가 만나주고는 하였다. 2호 밀영에서는 사령부를 찾아온 부대나 개별적인 방문객들을 맞아도 주고 쉬우기도 하고 떠나보내기도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에게 강습이나 훈련도 주었다. 2호 밀영은 사령부를 찾아온 사람들의 접수소인 동시에 대기소이기도 하였고 면담소인 동시에 숙소이기도 했으며 또한 강습소인 동시에 훈련소이기도 하였다. 그 당시 사령부로 찾아오는 통신원들도 흔적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명수 쪽에서 올라오다가 소백수골 어귀에서부터는 소백수물줄기를 따라다니게 하였다. 우리는 밀영의 처소들을 누구에게나 다 알리지 않았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은 비밀도 아니고 밀영도 아니다.

백두산밀영과 그 주변 밀영들이 있는 곳을 속속들이 알고 있은 것은 김주현과 김해산, 김운신, 마동희와 같이 연락임무를 도맡다시피 했던 몇몇 사람들과 소수의 지휘성원들 뿐이였다.

…

사화산이던 백두산에서 분출한 ≪광복혁명≫의 용암은 2천만 동포의 주목을 끌었다. 항일혁명의 불길이 미쳐간 곳곳을 돌아본 작가 송영은 자기의 답사기행문집에 ≪백두산은 어디서나 보인다≫는 표제를 붙였다. 그 표제가 말하듯이 우리가 백두산을 타고앉은 때로부터 백두산은 어디서나 보이는 광복의 활화산, 혁명의 성산으로 되었다.

조국통일은 애국애족의 위업이라 하시며

박소영 / 구국전선 제473호 주체91, 4월1일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드팀없는 신념이며 의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5대방침을 접하고 온 겨레가 들끓던 주체62(1973)년 6월 말의 어느날이였다 한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뵙게 된 한 일군은 조국통일 5대방침에 관한 해외교포들의 반향을 그분께 말씀드리였다.

당시 민족적 양심을 지닌 모든 해외교포들은 위대한 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5대방침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면서 민족의 영구분열을 막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에 적극 나서고 있었다.

그 일군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 계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 5대방침은 분열주의자들의 책동을 파탄시키고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공명정대한 방침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장군님께서는 ≪통일은 애국이고 분열은 매국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통일을 원합니다. 조국통일은 참말로 민족의 양심이 가리키는 애국위업입니다.≫라고 애국과 매국에 대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민족영구분열의 위기가 닥쳐온 오늘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상과 신앙, 당파와 소속을 초월하여 통일을 원하고 분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한데 뭉치어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을 물리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이는 것이라고, 그래야 민족의 영구분열을 막고 조국을 통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잠시동안 근엄한 안색으로 계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통일위업을 성취하자면 우리 민족을 하나로 단합시켜야 한다고, 남녘겨레들과도 단합하고 해외동포들사이에도 단합을 이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민족의 단합은 통일의 기초이며 전제이라고, 우리는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고 낮으나 힘찬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은 마디마디 민족애의 정신으로 높뛰었다.

바로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는 주의주장의 울타리를 넘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손잡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에서 고동치는 이 고결한 애국애족의 넋은 오늘 6.15공동선언에 아로새겨져 조국통일을 위한 겨레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 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은 우리 민족의 대단결과 통일성업을 이룩하게 하는 사랑의 정화이며 무궁한 힘의 원천이다.

사회단체 ≪F-15K≫전투기도입 강력 반대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30일



이미 보도된 것처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가 지난 27일 국방부 ***앞에서 ≪F-15K≫선정철회 ***기자회견과 규탄집회를 가진데 이어 같은 날 참여연대를 비롯한 9개 시민종교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F-15K≫기 선정중단을 위해 힘찬 투쟁을 벌여나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인터넷 사이트에 미국과 부시를 저주, 규탄하는 내용들이 ******. 이것은 이 땅의 각계 민중의 반미반전투쟁의지를 보여주는 지극히 정당한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F-15K≫기는 민항기도 아니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싸움을 목적으로 하는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도입이 북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북침은 곧 핵전쟁을 의미하며 핵전쟁은 민족공멸을 초래할 뿐입니다.

지금 온 민족이 남북의 화해와 단합을 통한 자주평화통일을 갈망하며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때에 이를 역행해 북침을 위한 전투기 기종책동에 망동하는 한미호전분자들의 작태야말로 우리 민족을 파멸에로 몰아넣는 용납못할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F-15K≫전투기도입책동은 그 누구를 위한 선사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기에 처한 미국 군수업체들을 복구하자는데 또하나의 저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F-15K≫기로 말하면 1970년대에 개발된 한세대 뒤떨어진 낙후한 것으로써 판로마저 막혀버린 기종입니다. 이로부터 ≪F-15K≫기를 생산하는 보잉의 미국 뉴욕공장은 지금 폐쇄에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미국 공화당으로써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은 이로부터의 출로를 저들의 식민지 민족에 대한 무기강매에서 찾고 부시를 비롯한 미국 호전광들이 이 땅에 연이어 날아들어 ≪F-15K≫구매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같은 사실들은 ≪F-15K≫도입이 우리 민족에는 백해무익하며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을 챙겨주는 반민족적 행위로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이미 전부터 미국의 ≪F-15K≫기 강매를 결사반대해왔던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경제예속책동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생계를 유지할 한푼의 돈이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의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군당국이 미국의 무기강매책동에 편승해 6조원이라는 막대한 국민혈세까지 미국에 퍼부으려 하고 있으니 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피를 가진 인간으로써는 할 수 없는 가장 흉악한 사대매국행위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전쟁의 참화를 덮씌우고 그 댓가로 우리 국민의 혈세를 빨아가려는 미국의 ≪F-15K≫기 구매강요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미국은 활화산처럼 분출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반미의지를 똑바로 보고 강도적인 전투기구매강요책동을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 군당국자들도 미국에 추종하고 있는 저들의 매국배족행위가 초래할 파국적 결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민의에 호응해 나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부 시민단체 주민 미군기지신설 반발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일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경기 의정부시에 미군기지 30만평 신설이 확정되자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참여연대 등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미군기지신설백지화를 위한 의정부범시민대책위≫는 지난달 3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소음공해 등 미군기지피해가 가장 심한 의정부시에 오히려 미군기지가 늘어나는데 경악한다며 시민주권을 박탈한 이번 협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각계 민중의 의사를 반영한 지극히 의로운 투쟁의 분출입니다.

이번에 의정부시에 미군기지 30만평 신설이 확정된 것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미군기지를 모두 철폐하라는 우리 민중의 정당한 목소리에 대한 악랄한 도전행위라 하겠습니다.



지금 미군기지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기지에서 마구 내보내는 폐수와 각종 공해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국과 미국은 미군기지를 철폐할 대신 오히려 새로 신설하려고 책동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오는 군사장비세척액, 지하저장고에서의 가스누출, 미군들의 생활폐수 등으로 인해 환경이 심히 오염되고 있으며 농토도 날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 미군부대대책위원회와 함께 조사한 건강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동 주민들은 소음을 비롯해 *** ** 청력 등에서 모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미군기지들 때문에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걸 반증해주는 하나의 사례라 하겠습니다.

미군기지에서 나오는 소음때문에 또한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소음기준치를 훨씬 넘는 미공군기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청력장애와 두통은 물론 **현상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군 직승기부대가 있는 의정부, 춘천지역에서는 직승기의 소음으로 난청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 마비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공군기지 주변 주택들에서는 전투기의 소음으로 삼복중에도 문을 닫고 청소해야 하고 운동장에서 하는 행사와 미군부대의 훈련이 겹칠 때면 행사를 중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입니다.



이 땅에 있는 미군기지야말로 우리 민중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범죄소굴입니다.

미군기지때문에 우리 민중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군당국과 미국은 미군기지를 모두 철수할 대신 도처에 새로 신설하려고 책동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볼때 의정부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미군기지신설에 강하게 반발해 나선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미국과 군당국은 우리 민중의 강력한 반미투쟁에 부딪히기 전에 미군기지를 모두 철폐하고 의정부시에 미군기지를 새로 신설하려는 것을 중지해야 합니다.

각계 애국민중은 이 땅에서 철천지 원수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그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미군기지를 모두 철폐시키기 위한 반미투쟁에 더욱 과감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F-X 둘러싼 또다른 전투장

≪사이버 여론이 세상을 바꾼다?≫



말썽 많았던 차기전투기(F-X) 기종선정이 27일 국방부의 1단계 평가 결과 발표로 미국 보잉사의 F-15K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흔히 사이버(cyber) 세상이라 부르는 인터넷 상에서는 반대 여론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1단계 평가 결과 발표 전부터 F-15K로 선정될 것을 우려해온 네티즌(Netizen, 인터넷 사용자)들은 국방부의 이번 발표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서면서 서명운동 등 구체적 실천에 나서고 있다.

참여연대는 F-X관련 특별 홈페이지(www.cleanfx.net)를 통해 27일 국방부의 외압을 폭로한 조주형 대령의 2차 육성 증언을 공개하고 28일부터 ≪F-15 내정철회! 조작의혹 규명! 사이버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참여연대의 사이버 서명운동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경실련, YMCA전국연맹,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여성단체연합,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등 8개의 대표적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8일 하룻만에 3천여명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둘째날인 29일에는 6천명을 넘어섰다. 주제토론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도 벌써 660여건이 넘었다.

참여연대 오광진 맑은사회만들기본부 간사는 ≪국민들이 분노를 넘어 허탈감까지 표시하는데 이런 것을 모아내고 특히 사이버 상에서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의사를 결집, 수렴해서 국민감사 청구와 국정조사권 발동 등 후속적인 대응의 토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진 간사는 ≪국민들 여론이 비등해서 많은 참여에 놀라고 있는 중이고 국민들이 뜨겁게 목소리를 내고 있어 높이 평가한다≫며 ≪퍼트리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서명 참가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최대의 포탈사이트인 다음넷(www.daum.net)에서는 ≪FX사업, 이대로 좋은가?≫라는 기획특집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종 선정을 위한 기준을 묻는 즉석투표에서 3월 26일 하루동안 총 40992명이 참여하는 열기를 보였다. 또한 ≪이슈를 논하자≫라는 게시판에는 총 6만여건의 의견이 올라왔다.

다음넷의 임준우 미디어팀장은 ≪사회적 관심사나 네티즌들의 화제거리를 기획 특집하는데, 이번 F-X 건은 그 어느 때보다 네티즌들의 열기가 뜨겁다≫고 평했다.

한편, F-X사업과 관련해 통일뉴스(www.tongilnews.com)에서는 11일 군사전문가 김종대씨의 ≪차기 전투기! 그 의혹의 10년≫이라는 기존 매체가 담기 어려운 장문의 기고를 게재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27일 국방부발표가 나자마자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이 오마이뉴스(ohmynews.com) 등에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담은 ≪F-X 1단계 평가결과 조작됐나?≫라는 글을 기고하는 등 인터넷의 특성인 발빠른 대응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이번 F-X사업과 관련해 인터넷 공간과 매체가 단순한 사회 여론의 반영을 넘어 스스로 사회여론을 형성하고 선도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 매체의 특성인 쌍방향성과 속보성, 무한지면성 등의 장점을 살려 기존 매체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네티즌들의 반향을 얻고 있다.

기종선정 위한 2단계 평가를 앞둔 F-X사업의 미래가 네티즌들의 사이버 상에서의 여론과 사이버 매체들의 활동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도 섣부른 예단만은 아닐 것이다.

김치관 기자

2002/03/29 통일뉴스



F15 구입반대 서명 이틀만에 만명넘어

반대열기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후끈

≪기관총 사려다가 손도끼를 산 격이다≫(한겨레인터넷ID 개장수),

≪우리 영공은 박물관이다! 골통품전시장…≫(다음ID 미남불패),

≪어차피 30년후 내다본 적이 없는 우리 민족이니 퇴역하는 F15 구입한다고 걱정하지 말자≫ (천리안ID KUHOU),

≪차세대 -≫차기 -≫고철덩어리 (천리안ID 석란)≫



국방부가 지난 27일 1단계 평가결과를 발표하며 F15를 사실상 확정하자 네티즌들이 인터넷게시판에 남긴 글 가운데 비교적 점잖게 기종결정의 문제점을 꼬집은 말들이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관련자를 총살…≫, ≪교과서에 실릴 매국노≫등 과격한 용어로 이번 결정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28일 오전 시작된 사이버 참여연대의 ≪F15도입 반대서명운동≫에는 이틀만에 1만명 이상이 서명하는 열기를 보이고 있다. 네티즌의 서명이 폭주하여 한때 사이트가 다운되기까지 했다.

27일 오후 1시 기종결정이 발표된 직후 국방부의 홈페이지는 네티즌들의 항의방문이 폭주해 27일 밤 늦게까지 사이트가 다운됐다. 30일 오전까지도 게시판 등 일부기능은 완전한 복구가 되지 않았고 공군 홈페이지와 각종 군관련 홈페이지들도 분노한 네티즌들의 표적이 돼 곤란를 겪고 있다.

네티즌들은 일반 포털사이트의 토론방과 게시판에도 미국과 우리정부 특히 국방부를 성토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올리고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FX 사업 이대로 좋은가≫코너에는 25일까지 마감된 5만7천여명의 의견 대부분이 F15의 차기전투기 선정을 비난하는 의견들로 채워져 있다. 간혹 보이는 F15 선정지지 의견도 ≪한국은 미국의 51번째 주이니 주방위군답게 선택하자≫는 식의 자조적인 글이 대부분이다.

같은 사이트의 ≪이슈투표≫ 코너에서도 ≪F15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89.2%가 반대를 표시했고 3.6%만이 찬성했다. 나머지 기타의견들은 ≪다음 정권으로 결정을 미루자≫는 것이 많았다.

인터넷한겨레의 여론조사코너에도 28일까지 이틀에 걸쳐 5천41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95.5%가 기종선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견에 찬성을 나타냈다.

오프라인에서의 F15 반대 열기도 뜨겁기는 마찬가지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번 기종결정에 특정기종을 지지하는 세력의 외압과 최종단계에서의 평가서 조작여부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이태호 국장은 ≪앞으로 오프라인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활발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히고 ≪1단계평가의 의혹조사 뿐 아니라 국정조사나 특감을 요구하는 활동도 펼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6개 시민단체는 현재 기밀누설 혐의로 구속 중인 조주형대령이 구속직전 남긴 녹음테이프를 통해 F15가 선정되도록 압력을 가한 인물중 하나로 지목했던 최동진 획득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28일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28일 성명서를 내고 ≪문제점 등을 철저하게 규명해 국가이익과 공정성, 투명성의 원칙에서 FX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개혁파 의원모임인 ≪새벽21≫ 소속의원 12명도 기종발표가 있던 27일 모임을 가지고 ≪FX 사업 기종결정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자주적으로 추진하고,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2차 평가에서는 국방부가 투명한 기종선종을 할 것을 당부했다.

참여연대등 시민단체대표들은 29일 천용택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이번 기종결정의 의혹과 외압문제를 국회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현정부의 국방부장관 출신인 천의원은 ≪지금은 5공 때와 다르고 시민단체들의 (이런) 행동이 월권일 수도 있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오는 4월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 보기는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 일각에서는 이번 FX사업과 관련된 여론의 반발과 프랑스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월드컵 이후인 6월이후로 결정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연내 처리 방침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F15반대 투쟁 열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손봉석 기자

2002/03/30 프레시안



F-X의혹 반드시 규명한다

273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가져



F-X 사업의 1단계 평가결과가 발표된 후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3일 오전 10시 자통협,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279개 시민사회단체는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F-X 외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내정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행동(이하 F-X공동행동)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그동안 국방부의 F-X 사업추진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오던 반대 움직임들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F-X공동행동은 국방부, 정치권, 대통령에 대해 ▲F-X평가내용 공개 ▲F-15K 내정철회와 추가평가작업 중단 ▲F-X사업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 ▲조주형 대령의 증인채택 ▲F-X예산동결 ▲F-X기종선정일정 중단과 전면 재검토 등 총 7개항의 요구를 발표했다.

F-X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조주형 대령의 외압폭로로 국민의 의혹이 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평가기준과 결과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F-X기종결정을 몰아부치고 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국방부를 비판했다.

또, F-X공동행동은 ≪F-X선정과정에서 부시 행정부의 조직적인 압력이 행사되었고 F-15K가 사실상 선정된 것에 주목한다≫며 ≪대다수 요소에서 다른 기종들보다 열세인 것으로 알려진 이 기종이 선택된 것은 미국의 압력을 빼놓고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F-X공동행동은 ≪F-X사업을 둘러싼 모든 의혹과 불신을 해소할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과, 새로운 안보환경에 걸맞는 민주적 절차와 자주적 의사결정구조를 새롭게 확립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9시에 대표자 회의를 열고 4월 한달동안 F-X의혹규명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지역별로 전개하는 한편, 4월 10일 서울역에서 범국민공동집회 등을 개최할 계획을 확정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밝혔다.

자회견을 마친 대표단은 바로 서울 YMCA 앞에서 F-X 외압의혹 규명과 F-15K 내정철회를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서명에 참여한 대학생 김기덕(26, 한양대)씨는 ≪이번에 F-15K로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군사적, 정치적으로 대미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을 실감했다≫며 ≪F-X사업이 국민과 별개로 진행되지 않고 최대한 우리의 실정에 맞게 기종이 결정되었으면 한다≫고 F-X사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F-X공동행동은 이날 273개 단체가 참여했지만, 향후 F-X공동행동의 뜻에 공감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어서 F-X사업을 둘러싼 국방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장동렬 기자
2002/04/03 통일뉴스

부평미군기지, 인천 시민 품으로

≪이 땅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때까지 투쟁은 계속된다≫

부평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7년간 운동의 결실을 총화하는 기자회견 및 단식농성 해단식이 30일 오전 10시 부평미군기지 농성장 앞에서 진행됐다.

≪우리땅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 ≪부평권리선언운동본부≫는 경과보고를 통해 부평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토론회, 24시간 시민감시단 활동, 부평미군기지 반환농성 600일 맞이 기자회견 및 올해 부평미군기지 반환의 해 선포, 연합토지관리계획 후속협상에 따른 부평미군기지 반환 촉구 단식농성, 부평미군기지 반환 촉구를 위한 집중 선전전 및 캠페인, 부평미군기지 반환 촉구 미대사관 1인 시위 ,부평미군기지 반환촉구 부평구 21개동 1인시위, 부평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인천시민 강강술래등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마친후
제2의 부평미군기지 운동에 결의를 보이고 있다

또 이들 단체들이 부평미군기지 반환운동을 ≪인천시민의 승리≫라고 강조한데는 다 이유가 있다. 96년부터 시작한 반환운동에 10만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과 성원을 보내주었기 때문이다.

이 기쁨을 인천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 오는 31일 오후3시 부평미군기지 반환기념 인천시민 걷기대회를 진행하며, 4월1일부터 일주간을 ≪부평미군기지 반환발표 집중 홍보활동≫을 갖는다.

또 4월7일에는 부평미군기지 반환 인천시민 지신밟기, 4월14일 부평미군기지 반환기념 인천시민 대동한마당 등 축제의 시간을 보내고, 4월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부평미군기지 반환운동의 성과재조명 및 반환결정에 대한 대책과 토지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공청회 등을 진행해 ≪부평미군기지가 인천시민의 품≫으로 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2의 부평미군기지 운동을 벌여낼 계획이다.

인천시민회의, 부평권리선언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부평미군기지 반환발표는 민족의 자주권과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대중운동의 결실이자, 미군의 억압속에서 50년이 넘게 숨죽여 지낸 민중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하면서도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상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전국 미군기지 반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숙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4천만 국민들에게 절반의 승리로 발표된 연합토지관리계획 후속협상 결과와 관련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11월 미군측이 추가공여지로 요구했던 75만 평이 이번 발표에선 두배 이상인 154만 평으로 발표 되었다. 또한 주민들의 민원이 컸던 매향리 폭격장, 스토리 사격장등이 제외되고 미군기지의 온상인 용산미군기지에 대한 언급도 차후로 미뤘다. 이는 현재 야산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지를 반환하는 대신 새로운 토지매입을 요구한 것으로 결국 득을 보는 것은 주한미군뿐이다. 우리는 이렇게 자국의 이득만을 취하면서 한국민을 우롱하는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인천시와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부평미군기지 이전(반환) 비용은 국방부 소유 토지매각 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전국 미군기지 이전비용중 1조 4천억 원을 우리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출하려는 것으로 미국은 자신의 전략에 따라 미군기지를 재배치하고, 한국 국민들에게 또다른 고통을 안겨주는 것으로 우리는 이전비용 부담을 결사 반대한다.

셋째,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반환되는 기지내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 미군측은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고집해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결국 우리에게 원상복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운 것이다. 이는 지난 50여 년이 넘게 무상으로 남의 땅을 이용해 먹고선 오리발을 내미는 주한미군의 더러운 작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앞으로 이를 묵과할 수 없다.

한상욱 부평권리선언운동본부장은 이와관련 ≪우리는 앞으로 부평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후속대책마련 투쟁뿐만 아니라 전국의 미군기지가 완전히 반환될 때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며 ≪이 땅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는 한 투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기자
2002/03/30 오마이뉴스

평택 ≪단 한 평도 내줄 수 없다≫

평택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열고 범시민적 반대활동 펼칠 것 천명



≪평택에 단 한 평의 미군기지도 확장할 수 없다≫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해온 평택지역 시민단체들이 30일 오전 10시 시내 중심지역인 평택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발표한 기지 확장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평택지구협의회, 평택시민단체연대회의, 평택농민회 등 20여 개 단체로 구성되어 지난해부터 기지확장반대운동을 전개해온 ≪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대책위원회≫는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이번 발표는 원천무효라며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미정부당국의 LPP(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발표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군기지 74만평 평택 확장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처음 발표한 41만 평보다도 훨씬 많은 평택의 곡창지대와 주택이 미군기지로 공여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하며 미군기지 74만평 확장을 막기 위해 싸움을 전개할 것≫이라며, ≪우리는 90년대 초반 용산미군기지 평택이전을 저지시켰던 그 힘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해 36만 평택시민과 함께 더 이산 단 한 평이라도 평택에 미군기지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저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발표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에 내주기로 한 154만 평 중에서 오산공군기지 50만 평, K-6 캠프험프리즈(Camp Humphreys) 24만 평 등 평택지역이 74만 평을 차지하고 있다.

이철형 기자
2002/03/30 오마이뉴스

의정부 미군기지 반대 주민투표 요구

경기도 의정부시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일 의정부 등 미군부대 통합지역에 대해 토지를 추가 제공키로한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민투표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달 말까지 시민, 사회단체 회원 등 5만명의 서명을 받아 시(市)와 시의회에 주민투표 조례 제정 청원서를 제출하고 의정부시청과 의정부역 등에서 미군기지 신설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계속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앞서 지난 달 30일 의정부역 광장에서 30일간 천막농성을 마감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연합토지관리계획의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시와 시의회는 협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시민과 함께 미군기지 없는 평화의 의정부시 만들기 투쟁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한 미 양국은 일부 지역의 미군기지를 반환하는 대신 의정부시 등 미군부대 통합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를 추가로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연합토지관리계획에 합의했다.

박두호 기자
2002/04/01 연합뉴스

한미 당국의 LPP 협정 체결은 국민 기만

한미 당국은 3월 29일,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LPP(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을 체결하였다.

LPP는 남한 내 미군기지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하여 남한 내 미군기지를 권역별 중심기지로, 용산 미군기지를 전략사령부로 자리매김 하려는 부시정권의 신군사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이번 협정 결과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영구주둔 음모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물론 우리는 춘천, 부산, 부평, 원주, 군산 등의 일부 기지를 비롯하여 4천 백만 평의 공여지가 반환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LPP 협정은 주한미군기지의 전면 반환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가장 기초적인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미국측의 요구가 중심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주한미군기지 전면 반환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최소한이라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국민적 현안이자 즉각적으로 폐쇄되어야 마땅할 매향리 국제 폭격장과 파주 스토리 사격장 등은 이번에 반드시 반환이 명시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향리 국제 폭격장과 파주 스토리 사격장이 반환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이번 협정이 철저히 미군 이해 위주로 체결된 기만적인 것임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기지 전면 반환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최소한이라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수도 서울 한 복판에 자리잡고 있어 국가주권과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서울시의 정상적인 도시발전을 가로막고 숨통을 죄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를 반환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이번 협정에서 용산 미군기지의 반환이 제외되었다. 이는 작년 12월초부터 계속되었던 용산 미군기지 반환 및 아파트 건립반대 투쟁으로 국민적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한미 군 당국이 이번 LPP 협정 체결 시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명문화하겠다고 한 합의마저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이번 LPP 협정이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전면 반환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최소한이라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추가 공여가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LPP 협정에서 주한미군에 154만평을 추가 공여하기로 한 것은 주한미군기지 전면 반환을 바라는 우리 국민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는 작년 11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75만평을 추가 공여하기로 합의했던 안보다도 대폭 후퇴한 것으로, 이번 LPP 협정의 기만성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추가 공여에 의한 미군기지의 신설, 확장은 그 대상 지역인 의정부, 평택, 오산, 포항, 부산, 칠곡, 이천, 온산 등의 지역 주민들에게 다른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전가시키는 것이어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한편 이번 LPP 협정은 미국이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지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환경오염의 고통을 떠 안겼다. 이번 반환되는 공여지는 대부분 훈련장으로, 미군의 폭격연습과 기름 유출 등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대부분 사용이 불가능한 땅들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주한미군은 오염된 기지를 복구하지 않은 채 반환하기로 함으로써 천문학적 액수의 복구비용을 우리 국민들에게 전가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번 LPP 협정은 이전비용의 절반을 한국 정부에 전가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번 협정에서 이전비용 3조3천억 원(24억 달러) 가운데 1조8천400억 원(13억8천만 달러)은 미측이 부담하고 나머지 1조4천900억 원(10억9천만 달러)은 우리나라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는 ≪협정의 유효 기간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미)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고 명시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 1항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협정은 미군기지 반환과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고 향후 10년에 걸쳐 개괄적인 연도만 밝힘으로써 용산 미군기지 이전처럼 언제든지 미국 멋대로 유야무야될 수 있고 앞으로 한층 더 개악될 소지도 크다.

이와 같이 이번 LPP 협정은 주한미군의 오만과 한국 국방부의 대미굴종이 낳은 매우 기만적이고 불평등한 협정이자 주한미군의 영구주둔 음모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협정이다.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기만적인 LPP 협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주한미군기지 전면 반환, 미군기지 신설, 확장 반대, 기지 이전비용 부담 반대, 환경 오염된 공여지 원상 복구 등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가는 길 밖에 없다.

김종일 용산 미군기지 반환운동본부(준) 공동집행위원장
2002/04/01 통일뉴스



한국네티즌연합 식목일 2차 반미행동전

≪우리도 뚝배기 근성이 있다는걸 보여주겠다≫



지난 3월 1일 미국제품 불매운동으로 제2의 독립군을 자처하며 거리행동전을 벌였던 대한민국네티즌연합이 오는 5일(금) 2차 전국집회를 가진다. 이로써 전국의 네티즌들은 ≪냄비근성≫이라는 국민여론에 ≪뚝배기≫의 힘으로 위력을 한껏 과시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제품 불매운동을 통해 우리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은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편파판정시비를 계기로 인터넷상에서 반미감정을 표출해오다 3월 1일 거리에서 태극기를 매달고 애국가를 부르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에서 행동전을 치뤘다.

2차로 진행되는 식목일 집회 또한 서울을 비롯한 전국 5개 도시에서 가지며 불매운동 대국민 홍보전을 시작으로 식목일인만큼 무궁화꽃씨를 나눠줄 계획이다.

서울경기연대집회는 2시부터 종묘공원에서, 대전충남은 11시부터 은행동 홍명상가 공원에서, 부산지역은 부산대학교 지하철입구에서 10시, 전북지역은 구 전풍백화점 사거리 인근에서 2시, 광주전남지역은 조선대 후문에서 1시에 각각 행사를 가진다.

대한민국네티즌연합 (http://coreanetizen.wo.ro)서울대표를 맡고 있는 조전용씨는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오래고, 지난 삼일절처럼 특정한 날도 아니어서 이번 식목일 행사준비가 쉽지만은 않았다≫며 ≪하지만 미제품 불매운동을 꾸준히 알려나가 냄비근성이라고 지탄받는 네티즌들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한편, 현재 활동하고있는 모든 네티즌단체와 학생 · 청년 · 시민사회단체를 포괄해 미국반대의 기치로 대규모 문화제를 기획하는 움직임이 있다.

제1회 청년민족축전 Oh! No! USA Festival ≪미美쳐 보자! (가칭) 페스티벌이 바로 그것.

4월27일(토) 3시부터 열리는 이날 행사는 현재 준비단계인 것으로 첫 기획을 민중가요 보급에 나서고 있는 송앤라이프(운영자 윤민석) 측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페스티벌준비위원회(http://www.ohnousa.com)는 최근 일고 있는 젊은층의 미국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해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개별적인 행동이 아닌 단결된 힘을 모아 미국반대 한목소리를 내자고 의의를 밝히고 있다.

페스티벌 준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한욱씨는 ≪현재 홍익, 광운, 건대 등 서울지역 20여 개 대학 총학생회와 한민족네티즌협의회가 참가여사를 보내왔다≫고 전하며 ≪타 네티즌단체를 비롯 전대협동우회 등 청년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에게 참가를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안치환, 크라잉넛, 우리나라 등이 출연하는 콘서트를 비롯한 영화제, 그리고 불매대상인 미제품 거리전시전 등 대규모 문화축제로 기획중이라고 설명했다.

백영순기자
2002/04/03 유뉴스



민족대단합 장이 될 ≪아리랑≫축제

이동국 / 구국전선 제473호 주체91, 4월 1일

≪아리랑≫대축전이 막을 올리게 될 날이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다. 온 겨레의 커다란 관심 속에서 4월에 막을 올리게 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 하루하루 다가옴에 따라 이남의 민심은 평양축제장으로 쏠리고 있다.

≪아리랑≫은 ≪비길데 없이 아름답고 민족적인 색체가 짙은 작품≫, ≪≪아리랑≫을 볼 기회를 놓치면 일생을 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민심추향이다.

북은 ≪아리랑≫축전준비를 오래전부터 성실히 해왔다. ≪아리랑≫의 출연자들은 공연준비를 위해 연일 맹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작품은 이념과 체제선전이 아니라 민족의 같음과 하나됨을 형상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남북해외의 화해와 단합, 통일열기를 고조시키는 민족대단결의 장으로 되리라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바 없다.

현시기 우리 7천만 겨레 앞에 나선 선차적인 과제는 6.15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한핏줄, 같은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한 강토위에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는 단일민족이다. 그러한 민족이 외세에 의해 분열되었고 장장 반세기에 걸쳐 남과 북에는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남과 북이 서로 자기의 이념과 체제를 대방에 강요하거나 선전만 하려고 한다면 언제가도 민족적 단합과 하나가 되는 통일을 이룩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이 준비하고 있는 이념과 체제선전이 아닌 민족의 같음과 하나됨을 형상하고 있는 ≪아리랑≫축전은 그 의미가 실로 크고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민족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마땅할 줄로 안다.

≪아리랑≫창작 완성단계에로

종합연습에서 보인 황홀경

4월말부터 두달간에 걸쳐 진행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종합연습이 5월 1일경기장에서 련일 진행되고 있는바 공연은 더더욱 세련되여 가고 있다.

≪아리랑≫공연의 창작사업은 이미 마지막단계에 있다. ≪아리랑≫공연준비위원회 책임일군은 ≪4월 10일에는 다 완성될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3월 28일 조선을 방문하고 있는 로씨야련방 대통령악단에 공개된 종합연습에서는 과반수의 장면들이 상연되였다.

≪이선남폭포≫중에서 선남, 선녀가 국부조명(스포트라이트)에 비쳐 지면서 하늘(무대 오른쪽)에서 내려 오는데 경기장 전체가 밝아 진 순간 그 모습이 없어 지는 장면, 또 ≪두만강을 넘어≫중에서 1천수백명무대출연자들이 흰 천을 가지고 눈보라를 형상하는가 하면 푸른 천을 가지고 두만강의 사나운 물결을 형상하는 장면은 참으로 놀랍고 볼만하다. 봉화가 지펴 지는 장면, 체조수들이 5층탑을 세우는 장면 등도 있다. 한 장면에서는 녀성출연자들이 손에 든 꽃가지가 밝게 빛장식되였으며 록색레이자빛이 곳곳을 비치는 등 3월 14일 ≪조선신보≫에 단독공개되였을 때보다 더욱 화려한 평양의 야경을 펼쳐 놓았다.

3월 29일에도 종합연습의 일부가 조선을 방문한 ≪아리랑≫관광고찰단들에 공개되였는바 한 장면에서는 배경대가 그리는 대동강앞에서 분수가 높이 올랐다. 까다로운 장치들도 완성되여 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아리랑≫공연준비위원회에 의하면 4월 10일에는 하늘을 날아 다니는 처녀를 비롯하여 기술적으로 어렵고 힘든 부분이 모두 완성된다고 한다.



≪아리랑≫공연은 수수한 적삼치마저고리, 가지각색 화려한 치마저고리를 입은 녀성들이 출연하는 장면이 아주 많고 부채춤, 쟁강춤 등을 피로, 어린이들도 민족옷을 입고 줄넘기재주를 부리는 등 민족적색채가 짙은 공연으로 준비되고 있다. 또한 공연은 수난의 시기로부터 강성부흥하는 오늘까지의 조선의 력사를 잘 보여 준다.

종합연습의 일부 장면은 련이어 평양에 찾아 오는 고찰단에 계속 공개되고 있다. 3월 29일에는 로이터, BBC, NHK를 비롯한 9개 나라 보도언론인들과 중국국제려행총사 대표들이 관람하였으며 30일에는 중국 단동시인민정부대표단 등이 관람하였다.

앞으로도 수많은 고찰단이 조선을 방문한다고 한다.

강종석, 강이룩기자
2002/04/03 조선신보

현 정세와 아리랑 축전의 의의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점차로 그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2001년 등장한 미국 부시행정부는 과거 북미간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북미관계 개선을 논의하기보다는 합의를 무로 돌리고 강도 높은 적대정책을 관철하는 것을 대북정책의 기본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부시정권은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하면서 그 총구를 ≪악의 축≫으로 돌리고 아시아 일대에서의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핵태세 보고서≫를 통해 북, 이란, 이라크, 중국 등 7개국에 대한 선재 핵공격을 고려하는 한편, 소위 ≪악의 축≫으로 지목한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합의한 핵무기 감축안에 대해서도 감축대신에 ≪보관≫으로 입장을 선회하였으며, 지하시설이 많은 북측 지형에 맞는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대북정책은 일방적이고 패권적인 대외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됩니다.

클린턴 정권 말기에 합의되었던 ≪10.12 북미 공동코뮤니케≫를 백지화함은 생화학무기, 인권, 종교문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9.11 테러사태 이후 반테러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할 것을 요구하다가 이북이 12개에 달하는 반테러협약에 가입하자, 이번에는 테러조직에 대한 정보와 그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결국 테러근절을 앞세워 이북의 대량살상무기의 사찰 및 감축이라는 무장해제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의 제네바합의 이행여부를 보증하지 않겠다고 선언, 제네바 합의 파기의 길로 나서고 있다. 이북은 방사성동위원소 연구소의 IAEA방문과 관측을 허용해 핵개발의 투명성을 확인시켜 주었고, 경수로 관련 고위관리자 20명이 남측 원전시설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등 제네바합의를 꾸준히 이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경수로 사업완료와는 무관하게 특별사찰 문제를 들고 북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북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첫째는 북미합의에 대한 원칙적 요구이며, 둘째는 국제적인 평화여론 조성이고 마지막으로 남북 화해와 단결의 활성화입니다.

우선 북미합의를 둘러싼 공방에 대해 이북은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한편 미국에 합의 파기냐 이행이냐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기의 권한은 미국에만 있지 않다≫고 선언한 북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북미간의 합의사항을 미국이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북 역시 핵, 미사일 동결을 해제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북은 12개의 반테러협약에 모두 가입하여 테러문제와 관련한 국제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한편, IAEA의 일반 사찰을 허용해 제네바 합의이행도 가시화 하였습니다. 러시아, 중국, 유럽 등 다방면적인 외교활동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북이 민족대단결 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기운을 높이고 이를 토대로 미국의 전쟁위협을 근원에서부터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북의 이러한 노력은 지금껏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제1항인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풀자≫는 기본정신 아래 민족대단결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방면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이 날로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오늘, 이북은 국제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우리 민족끼리≫의 지향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준비되어 있는 ≪아리랑축전≫ 구상 시기가 2001년 초반이라는 점은 이를 잘 설명해줍니다. 이 시기는 부시행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이 노골화된 시점이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일정하게 관철되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민족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는 ≪아리랑≫을 그 주제로 하여 10만 여명이 동원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구상했다는 것은 민족적 단결과 단합에 대한 강력한 지향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북은 전세계에 ≪아리랑축전≫ 홍보 및 초청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남에서의 폭넓은 참가를 위해 여러 경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임동원 특사 파견도 ≪아리랑축전≫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는 분석은 무리가 아닙니다.

≪아리랑축전≫ 자체의 의미가 대규모적인 관광사업이 중심이 아니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날로 격화되는 시점에서 ≪우리 민족≫을 화두로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아가 민족통일의 의지를 만방에 과시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2돌을 맞는 올해, 우리 민족은 중대한 전환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이북은 이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해결하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전환의 국면에서 우리는 이북의 ≪어서오시라, 평양으로≫에 화답할 준비를 해야할 것입니다. 전세계 만방에 평화의 의지와 민족통일의 염원을 유감없이 호소할 준비에 한민족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임동원 특사 파견과 통일정세의 변화

3.25 남북 양측에서 임동원 특사가 4월 초에 방북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임동원 특사 파견은 침체되어 왔던 남북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 동북아 정세 및 국내 정세에서도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임동원 특사 파견을 둘러 싼 국내외 통일정세를 살펴 보고 향후 전망에 논해 보고자 한다.



1. 임동원 특사 파견의 배경

1) 미국의 딜레마

9.11 참사 이후 미국은 ≪반테러 연합전선≫이라는 미명하에 전세계적인 범위에서 미국의 유일 패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진행해 왔다. 10.7 아프칸 공격과 알-카에다 잔존 세력에 대한 작전으로부터 시작된 미국의 계2단식 전쟁대결 노선은 최근 예멘, 그루지야, 필리핀에 산재해 있는 알-카에다 잔존 세력에 대한 연합 작전(미군과 해당국 정부 및 주변 동맹국이 결합된 사실상의 전쟁이다)을 뛰어 넘어 이라크에 대한 구체적인 군사 공격이 논의되는 수준으로 심화되어 있다.

이러한 전쟁대결노선의 연장선하에서 한편으로는 1.8 미 의회에 ≪핵태세검토≫가 제출되고 1.29에는 이북,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이라 지칭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소형 핵무기 건설, 요격미사일 실험, 무인 정찰기 계획 등 첨단 무기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위와 같은 부시 행정부의 호전적인 군사주의는 당면해서는 악의 축으로 지칭한 이라크를 현실적인 목표로 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딕 체니 부통령의 중동 순방에서 보듯이 이라크 확전에 대한 중동 지역의 여론은 미국에 유리하지 않다. 이런 조건에서 이북을 겨냥한 엄포성 강경 발언을 계속하기는 했지만 이를 현실화할만한 구체적인 수단과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악의 축≫이라 명명하고 붕괴시키겠다고 폼은 잡았지만 막상 이북을 정치군사적으로 궁지로 몰아갈만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는 못한 것이다. 아마도 이북과의 본격적인 정치군사적인 공방은 이라크 확전 결과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조성된 남북대화는 미국의 표면적인 대북강경노선과 이를 현실화할만한 구체적인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간극 사이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2) 김대중 정부의 반격

2001년 미국과 수구보수세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던 김대중 정부는 2002년 들어 두가지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부시와의 정상회담에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전쟁노선을 어떻게든 잠재우려는 필사의 노력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곤돌리자 라이스 보좌관만 배석한 단독 정상회담에서 예정된 시간을 넘겨가면서까지 부시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이북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외교적인 후퇴를 얻어 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후퇴를 기반으로 대북 특사 타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국내 수구세력과의 관계이다. 현대 아산 김운규 사장을 통한 대북 메시지, 금강산 관광 활성화 방침 등은 국내 수구세력의 공세 속에서도 김대중 정부가 ≪햇볕 정책≫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한편 최근 민주당 경선과 한나라당의 내분 사태로 인해 수구보수세력의 준동이 약해진 점은 김대중 정부의 운신의 폭을 넓게 한 측면이 있다.

이번 특사 파견은 심각한 레임덕으로 명맥만 간신히 유지하는 듯이 보이던 김대중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향한 의미있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북의 호응

이북은 1.22 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중시한 바 있다. 2월 26일 통일부가 통일연대 참가자를 대거 불허함으로써 새해맞이 공동모임을 사실상 무산시킨 것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수구세력을 규탄할 뿐 김대중 정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따라서 2002년 이북의 일관된 태도는 남북당국자간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단 중요하게 고려했던 것은 김대중 정부가 얼마나 미국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가의 문제였을 것이다. 사실상 김대중 정부가 부시 행정부의 입장을 대리하는 입장에 선다면 남북대화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밝힌 배경으로 인해 남북대화를 통해 미국의 개입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남측의 특사 파견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주목할만한 몇가지 정세 변화

1) 이북의 전방위 외교의 성과

이북의 전방위 외교의 성과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10~12 플리코프스키 러시아 대통령 극동지역 전권대사가 이북을 방문하였고 3.17에는 **김정일** 비서가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하여 러시아 명절 행사에 참여하였다. 또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한 제안을 하는 등 조러 관계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유럽과의 관계는 질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광근 무역성 무역상을 대표로 하는 경제 사절단이 벨기에, 영국 등 유럽 4개국을 2주에 걸쳐 순방했고 유럽연합은 ≪대북협력 전략문서≫을 승인하여 양자간의 관계가 이전의 인도적인 지원 단계에서 경제

협력 단계로 발전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특히 유럽연합은 이북과의 접근을 미국의 일방주의를 저지하는 정치적 지렛대로 삼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pressian.com 참고)

한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001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순방한 데 이어 2002년에는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각각 방문하여 동남아 국가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90년대말 이후 본격화된 이북의 전방위외교는 부시 행정부 출현 이후에도 꾸준히 발전해 가고 있다.

2) 미국의 한반도 개입 구도의 파탄

민주당 경선에서 보여 준 노무현 돌풍은 첫째. 보스 중심의 파당 정치에 대한 환멸, 둘째. 서민 생계의 악화에 따른 서민 대중의 가세 셋째. 반통일,수구적 정치 풍토에 맞서는 민주개혁 세력의 결집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비록 노무현 후보가 자주통일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않지만 정치적 무관심에 젖어 있던 30,40대 개혁적인 청장년층과 서민대중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친미보수 정치 구도에 파열구를 열어 가고 있는 모습은 향후 한반도 정세 발전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로부터 첫째. 향후 대선에서 미국의 이해를 안정적으로 대변하는 보수수구세력의 집권이 불투명해진 점 둘째. 민주개혁 세력의 정치적 진출이 가속화되는 한편 이것이 점증하는 자주통일 정서와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진 점 셋째. 김대중 정부의 운신의 폭을 열어 준 점 등은 주목을 요하는 대목이다.

3) 김대중 정부의 이중성

김대중 정부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전향적인 요구와 함께 이를 민족적 입장에 확고히 서서 국민적 힘을 발동하여 해결하려 하지는 않는 모순된 태도를 함께 노출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부시의 대북 전쟁 기도를 약화시키고 남북대화에 나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함과 함께 차세대 전투기 선정, 차세대 방공망 시스템, 필리핀 아부 샤아프 반군 소탕 작전에 대한 군수 지원 등 한미일 군사동맹의 하부 구조에 점차 깊숙히 편입되고 있다.

또한 발전, 공무원 노조에 대한 강권적인 탄압과 한일 투자협정 등 경제적 차원에서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이란 국민적 힘을 동원하여 민족적 입장에 서서 통일문제를 다룬다기보다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우선하며 정권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의 대북강경책을 제어하고 ≪햇볕 정책≫의 정치적 공간을 확대하는 데 있다고 보인다.

3. 향후 전망

1) 조미, 조일 관계

1.10 박길연 외무성 부상과 잭 프리쳐드 한반도 평화담당 특사가 만난 이래 3.13과 3.20 각각 한차례씩 미국에서 만난 것으로 되어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부시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대북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이북이 핵과 미사일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으로 사실상 대화의 진행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다.

한편 이북은 조미간 대화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어렵다고 보고 조중.조러 관계의 강화, 전방위외교의 확대, 조일 관계의 복원, 남북관계의 개선 등으로 상황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

3.25 특사 파견과 함께 주목되는 것은 3.22 조선적십자사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일본인 행불자에 대한 적십자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점이다. 일본인 행불자 문제는 조일 수교 회담의 걸림돌이 되었던 문제로 이북이 이에 대해 회담할 용의가 있다는 것은 조미 대화가 여의치 않은 조건에서 전방위외교의 성과의 연장선에서 미국의 대북 포위망을 뚫으려는 노력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2) 남북관계

4월 3일로 예정된 특사 교환은 어떤 형태로든지 긍정적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수준이다.

예상되는 합의 수준은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인 지원(비료, 식량 등)을 맞바꾸며 장관급 회담을 재개하는 것, 아리랑 축전과 월드컵을 연계하여 상호 교차 방문하는 것, 그외 남북의 공동 현안에 대한 합의 등을 예견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북의 핵,미사일에 대한 해결 방안, 2차 최고위급 회담의 개최 여부 등이 중요한 논의 사항이 될 것이다.

상반기 남북대화의 성과를 좌우하는 것은 다음의 두가지이다.

첫째는 남북 당국자 회담의 진로이다.

남측은 이북의 핵,미사일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할 것이고, 이북은 핵.미사일 문제는 북미간의 현안임을 지적하며 역으로 조미간 대결을 위한 ≪민족 공조≫를 도모할 것이다. 양자의 입장 차이가 어느 수준에서 조율되는가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핵.미사일 문제를 남북대화의 실제적인 의제로 삼으려 한다면 남북대화의 전망은 밝지 않다. 남북대화는 적당한 성과를 남긴 채 마무리되고 다음 국면인 조미 대결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김대중 정부가 핵,미사일 문제를 슬쩍 비켜 가면서 남북간의 포괄적인 화해.협력을 중심 의제로 한다면 남북간 대화는 급속히 다음 단계로 진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 상황에서 다음 단계의 남북대화는 아마도 2차 최고위급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는 전민족대단결운동과 남측에서 반미반전운동의 상승 정도이다.

올 상반기 남북 당국자간 회담은 남측에서 조국통일운동을 활성화하고 반미반전운동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상반기 진행될 남북당국자 회담의 결과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반면 남북 당국자 회담의 재개를 통해 얼마나 민족자주통일운동을 활성화하느냐의 문제는 남북당국자 회담의 성과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다가올 2003년의 대격돌을 예비하는 중대한 토대가 될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임동원 특보 특사 파견 논평

임동원 특보 특사파견으로
6 · 15 남북공동선언 파탄의 위기를 돌파하는 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한반도 긴장조성 예방, 6·15 공동선언 준수, 남북 합의사항 이행 문제 등 제반 현안에 대해 남북 최고당국자간의 폭넓은 의견교환을 위한 특사파견≫에 대한 우리 정부측 발표와 동시에 북측도 ≪쌍방은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와 함께 서로 관심하는 북남관계 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임동원 대통령 외교통일안보특보의 평양 방문을 발표하였다. 통일연대는 임동원 외교안보통일특보의 평양방문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게 성사되는 방문인 만큼 한반도 평화와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비약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1. 김대중 대통령이 재삼 재사 밝힌바 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계기로 되는 방문≫이 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에 순응하는 자세로 회담에 임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란 외세의 일방적 요구로 한반도가 전쟁의 참화로 휩쓸려들어가지 않을 때 보장되는 것임을 우리 국민들은 이제 분명히 알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은 한반도가 더 이상 외세의 분열책동에 말려들지 않고 민족의 공조와 단합을 확고히 실현하는 길뿐이다. 임동원특사는 이러한 명백한 진실을 직시하고 미국의 노골적인 내정간섭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민족의 단합을 실현할것인가를 중심으로 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내정간섭, 전쟁책동과 한반도의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

통일연대는 이번 방문이 개별 사안에 대한 합의에 앞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다시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는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회담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 임동원특사는 한나라당,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반통일세력의 6.15남북공동선언파탄움직임에 쐐기를 박는 회담으로 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반통일세력들은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그 순간부터, 남북공동선언을 반갑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의 민족분열정책의 나발수가 되어 상호주의, 투명성, 검증론을 들고나오며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어왔다. 뿐만 아니라, 이회창 한나라당총재는 미국과 일본 등을 방문하며, 대북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며, 대권을 구걸하는 수치스런 모습까지 보였준 바 있다. 이번 임동원 특보의 평양방문에 대해서도 그들은 ≪ 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의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게 아닌가, 선거를 앞두고 북한문제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국민요구에 배치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오히려 남북관계를 정략적으로 호도하는 자신들의 본질을 가리우며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3. 지금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절실하게 바라고 있다. 또 그것은 민족의 공조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기시 되었던 국가보안법 폐지가 여당을 비롯한 정치인들안에서 조차 논의되고 있으며, 한반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에 대한 반대운동이 범국민적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제 미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적대정책을 등에 엎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파탄내려는 한나라당과 수구반통일세력의 주장은 국민들 안에서 완전히 외면당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 모든 것은 6.15남북공동선은 외세등의 갖은 탄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7천만 민족의 이정표로 확고히 자리매김되고 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에 그 어떤 난관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흔들림없이 민족자주의 길, 민족대단결의 길을 가고야 말 것이다.

임동원 특보는 그간 김대중 정부의 모든 동요와 흔들림을 청산하고, 민족의 운명을 걸머 쥔 특사답게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자세로 일관할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지켜볼 것이다.

2002. 4. 3.
6 · 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북 ≪10-12일 민간 접촉≫ 동의

≪통일을 염원하는 2002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는 2일 북측이 남북 민간급 실무 접촉을 오는 10일부터 금강산에서 갖자는 남측 제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준비위 관계자는 이날 ≪북측이 오늘 팩스를 보내와 남측 제의에 동의한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준비위는 조만간 조성우 민화협 집행위원장 등 20여명의 명단을 북측에 보내기로 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남측 준비위원회가 지난달 9일 ≪평양에서 3월16일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의한데 대해 같은달 14일 답신을 통해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이유로 남측 제안을 거부한 뒤 ≪4월초 금강산에서 실무접촉을 갖자≫고 역제의해 왔다.

이충원 기자
2002/04/02 연합뉴스

≪한나라당≫ ≪대북기본로선≫, 반공화국전쟁선언 반통일선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최근 남조선의 ≪한나라당≫은 그 무슨 ≪대북기본로선≫이라는것을 꾸며 냈다.

여기에서 ≪한나라당≫패들은 이른바 ≪분리원칙≫이니 뭐니 하며 우리의 체제를 감히 걸고 들면서 북남사이에 진행되는 협력교류에 대해 ≪상호주의≫와 ≪투명성≫이라는 차단봉을 내들고 사실상 반대해 나섰다.

그들은 또한 ≪평화보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북남사이의 ≪협력사업은 절대로 할수 없다≫는 이른바 ≪선평화, 후교류협력의 원칙≫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도 들고 나왔다.

심지어 ≪한나라당≫것들은 ≪북부개발계획≫이라는 터무니없는 망상까지 드러내 놓았다.

이것은 ≪한나라당≫이야말로 극악한 민족반역의 무리들이라는것을 보여 줄뿐이다.

≪한나라당≫이 우리 인민의 생명이고 존엄인 우리의 체제를 감히 걸고 든것은 우리의 ≪제도변경≫을 운운한 정치불량배인 부쉬의 망발을 되받아 외운것으로서 미제의 부추김밑에 우리와 끝까지 대결해 보려는 속심을 그대로 드러내 놓은것이다.

이것은 ≪한나라당≫의 ≪대북기본로선≫이라는것이 남조선 언론들도 지적하고 있는것처럼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한 북남기본합의서에 전면배치되고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부정하는 반통일적인 범죄문건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다.

≪한나라당≫이 그 무슨 ≪상호주의≫와 ≪투명성≫이라는것을 들고 나온것도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민족안의 관계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들사이의 관계로 만들어 통일에 훼방을 놓기 위한 고약한 반민족적사고의 표현이다.

≪한나라당≫의 ≪선평화, 후교류협력≫이라는것은 북남사이의 협력교류를 영원히 하지 않겠다는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교란하는 화근은 미국의 남조선강점에 있으며 ≪한나라당≫은 미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애걸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군이 남조선에 남아 있는 한 조선반도에서 평화가 보장될수 없으며 따라서 그들은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언제까지나 하지 않으려 하는것이다.

더우기 ≪한나라당≫이 추구하고 있는 ≪북부개발계획≫이란 우리 공화국북반부에까지 남조선의 식민지체제를 연장해 보려는 얼 빠진 수작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한나라당≫놈들이 꾸며 낸 ≪대북기본로선≫을 미국의 대조선침략책동의 돌격대로 나서려는 반공화국전쟁선언으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 막고 민족분렬을 지속시키려는 반통일선언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온 겨레의 이름으로 강력히 단죄규탄한다.

이러한 추악한 범죄문건을 조작해 낸 ≪한나라당≫이 집권하게 되면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긴장이 격화되고 전쟁위험이 증대될것이며 6.15북남공동선언이 날아 나고 남조선의 통일애국세력, 민족민주운동세력이 탄압 당하게 될것은 명백하다.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모든 통일애국세력은 리회창과 ≪한나라당≫을 단호히 반대배격해 나서야 하며 놈들의 집권책동을 결사분쇄해야 할것이다.

만일 ≪한나라당≫이 계속 미국의 추악한 하수인노릇을 하면서 북남관계개선에 훼방을 놓으며 자주통일의 앞길에 장애를 조성한다면 온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주체91(2002)년 3월 29일
평 양



한나라당의 반북대결적 ≪대북기본노선≫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31일



사회자 : 안녕하세요.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한나라당이 반민족반통일, 사대매국행위를 자행해 내외 여론의 강력한 규탄을 받고 있는 데요. 반북대결적인 ≪대북기본노선≫이라는 것을 작성해 시행하려는 사실이 드러나 남북관계개선을 바라는 우리 민중을 더욱 분격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으면해서 자리를 같이 했는데 먼저 반민족반통일, 사대매국정당인 한나라당이 작성한 ≪대북기본노선≫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정원 : 한나라당안에 조직되어 있는 국가혁신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대북정책의 골격으로 되는 ≪대북기본노선≫이라는 문서를 꾸며냈어요. 주요 골자를 보면 남북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극력 반대하며 ≪선평화 후교류협력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 더욱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은 ≪한반도 국토개발계획≫이라는 것까지 작성한 거라고 봅니다.
사회자 :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나라당이 꾸며낸 ≪대북기본노선≫을 보면 남북사이의 교류협력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추진돼야 한다느니 투명성이 보장되는 여건에서의 북의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지 않았습니까.
윤정원 : 그렇습니다. 상호주의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철두철미 반민족적인 분열의 논리, 대결의 논리죠. 남북관계는 남북합의서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닙니다. 같은 핏줄을 나눈 동족간의 관계인 남북관계문제는 곧 민족문제, 통일문제죠. 민족문제를 등가교환으로 해결하겠다는 자체가 언어도단이 아닙니까. 더욱이 민족공조의 대책기준도 없는 상호주의논리를 남북관계에 적용하겠다는 건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려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투명성이 보장되는 여건에서의 인도주의 지원이라는 것도 못쓰는 식량과 물건을 무기로 북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고 북에 대해서 ***아닙니까.



사회자 : 이회창이 ≪선평화 교류협력의 원칙≫이라는 것을 들고 나온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윤정원 : 그렇습니다. 대북기본노선에는 평화보장이 없는 가운데 교류협력을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남북사이의 협력교류를 반대하고 남북관계개선을 차단하려는 범죄적 기도에서 나온 거라고 봅니다. 한반도에서 평화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미제와 한나라당패거리와 같은 호전광들 때문입니다. 평화를 파괴하면서 그것이 보존되지 않는 한 교류협력을 하지 않겠다니 이것이 남북교류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뭐겠어요. 결국 그것은 남북공동선언을 뒤집는 망동이고 이산가족들의 상호방문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남북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고 남북관계를 대결과 전쟁국면에로 되돌려 세우려는 미 상전의 비위를 맞춰 신임을 얻어보려는 반역종자만이 할 수 있는 소리죠.
사회자 : 반역정당으로해서 비판받고 있는 한나라당이 이른바 ≪국토개발계획≫이라는 것까지 만들려고 책동하고 있는 것은 더욱이 용납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윤정원 : 그렇습니다. ≪국토개발계획≫은 본질상 선행 통치배들의 이북파괴책동의 재판이고 범죄행위라고 봐요. 한나라당패거리들이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버젓이 당의 노선으로 못박고 ≪국토개발계획≫과 같은 북침침략계획까지 꾸며내려고 책동하고 있는 건 북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고 도발이라고 하겠죠. 한나라당이 ≪국토개발계획≫까지 꾸며내려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북침통일의 개꿈이 ***라고 말할 수 있죠. 당 자체가 공중분해될 위험에 처해있는데도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 건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사회자 : 앞에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한나라당이 꾸며낸 ≪대북기본노선≫이라는 건 철저히 반북대결적인 것으로해서 이것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악결과가 자못 크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윤정원 : 한나라당이 꾸며낸 ≪대북기본노선≫이라는 건 부시의 ≪악의 축≫망발과 이북을 비롯한 7개 나라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핵태세 검토보고서≫, 미국의 침략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반민족적인 전쟁선언이고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민족분열을 영구히 조장시키는 분열과 대결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한나라당이 꾸며낸 반북대결적인 ≪대북기본노선≫이라는 것을 세부해 봤는데요. 이건 역대 통치배들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한 극히 불순한 문제들이 수반돼 있어 언론과 사회각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윤정원 : ≪한겨레≫를 비롯한 언론은 한나라당이 꾸며낸 ≪대북기본노선≫이라는 것은 금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며 비난의 소리를 아끼지 않았어요. 사회여론은 미국대통령 부시가 이북의 제도에 대해 시비중상하며 ≪악의 축≫으로 쳐친 망발과 일맥상통하는 입장으로 개탄하고 있고 한나라당의 **** ≪대북기본노선≫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들은 한나라당이 꾸며낸 매국문서가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한 합의서내용과도 전면 배치되고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첨예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을 했죠. 재야인사 김모씨는 반북대결책동에만 혈안이 되고 있는 한나라당이 꾸며낸 ≪대북기본노선≫이라는 것은 6.15남북공동선언이행에 찬물을 끼얹는 용납못할 반통일적인 행위이고 남북관계를 대결의 원점으로 몰아가려는 반북히스테리적인 발작증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사회자 : 지금 국민들은 한나라당과 이회창이 자행하고 있는 반북대결책동에 환멸을 느끼면서 이회창정계퇴진, 한나라당해체투쟁을 광범위하게 벌여나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윤정원 :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이회창이 노는 꼬락서니를 보고 치밀어오르는 분격을 금할 수 없다며 통일의 원수, 미국에 충실한 주구, 정치간상배인 이회창을 퇴진시키고 악마의 소굴인 한나라당을 해체시키기 위한 투쟁을 도처에서 광범위하게 벌여나갈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박모교수는 이회창과 한나라당을 그대로 두면 나라가 망하고 통일도 이룩할 수 없다며 이회창을 반대하고 한나라당을 해체시키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어요.

한총련소속 한 대학생은 이회창과 한나라당이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며 이회창을 국민의 심판대에 끌어내고 한나라당이라는 말자체를 없애버리기 위해 여러 학우들과 함께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굳은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아산시에 사는 한 주민은 이회창과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여기에 남북관계를 더 좋게 발전시키는 길이 있다며 이회창과 한나라당반대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각계 민중은 지금이야말로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해 반이회창투쟁을 반미투쟁과 결부시켜서 중단없이 벌여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반북대결적인 ≪대북기본노선≫을 작성해 시행하려고 책동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 이미 한나라당에 등을 돌려대고 있는 각계 민중은 이회창을 퇴진시키고 한나라당을 해체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나서야 한다는 걸 거듭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이회창 부정비리 밝혀져야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24~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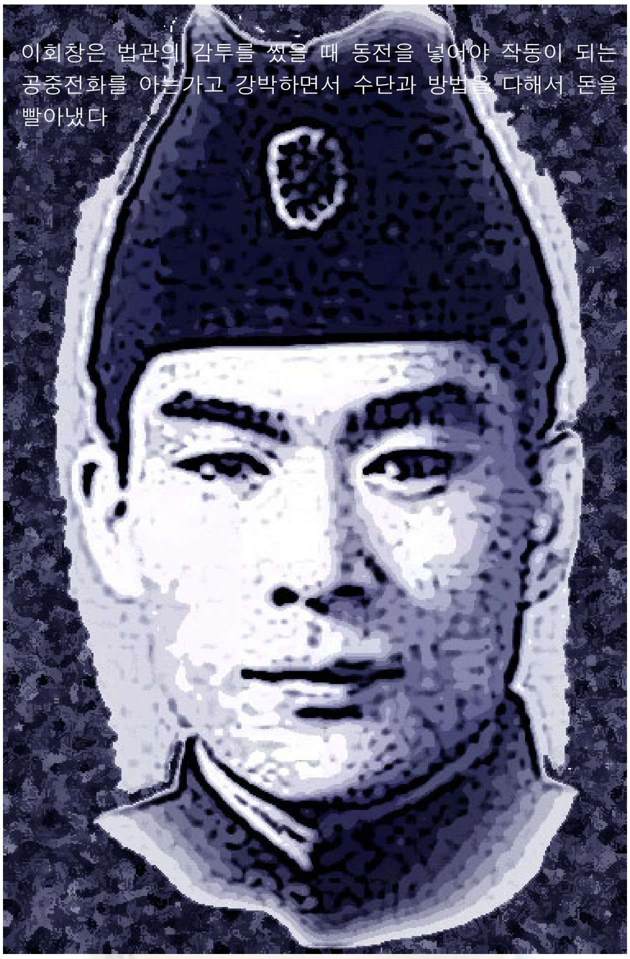


이회창이 한때 청렴결백에 대해 곧잘 떠들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회창이 지금까지 국민의 눈을 속여가며 교묘한 방법으로 거액의 돈을 부정착복한 사실이 드러나 각계 민중들의 분격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첫 순서로 ≪이회창의 부정비리는 밝혀져야 한다≫ 윤정원씨 모시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지금 정가에서 이회창이 여러 채의 호화주택을 가지고 자식들과 함께 살고 있는 등 흑막속에 가리워진 그의 경제생활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 각계에서도 이회창의 부정비리와 부정부패의 진상을 밝혀낼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 얘기 나눠보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윤정원 : 이회창이 한때 청렴과 정의를 주장하는 이른바 대쪽판사로 행세한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예요.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에도 그렇고 근간에 와서도 그는 기회있을 때마다 흐트러진 한국의 기본질서를 바로 잡겠다 그러면서 국민우선정치를 떠들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인기를 올려보기 위한 오그랑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 번에 걸쳐 국민의 눈을 속여가며 온갖 부정비리와 부정협잡의 방법으로 돈을 착복을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럼 먼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가회동 빌라 등과 관련한 이회창의 부정비리행위에 대해서 말씀해주실까요.
윤정원 : 이회창은 지난 97년 대선당시에 성동구 구기동 자택을 판 이후에 가회동 빌라와 잠실의 아파트 등 주거지를 네차례이상 옮기며 살고 있어요. 그가 월세 1천만원의 호화주택에서 47개월동안 공짜로 살고 있는 것은 4억7000만원을 증여받은 것과 같은 건데 그는 단한번도 거액의 전세금을 신고하지 않았고 지난 98년 이후 재산신고를 하면서 자택에 관한 사항은 한번도 밝히지 않았죠. 이건 가진 자들에게 유리하게 만든 허위재산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반되는 거고 증여세포탈혐의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회창이 후원금의 명목으로 빨아들이는 돈이 지난해에는 2억9500만원이고 지난 99년에는 1억원에도 못미쳐 국회의원 가운데 235위를 기록을 했는데도 무슨 돈으로 호화주택을 살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가회동 빌라 202호의 소유자가 김모씨로 되어 있지만 현재 그곳을 이회창이 쓰고 있는 상황에서 김모씨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신원도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회창의 장남 정연씨가

국제 금융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거액의 해외출장비와 국내사업비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가 하는 의혹도 이회창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가에서 이회창이 지난 시기 국세청을 동원해 불법모금한 자금 가운데 검찰에서 징용되지 않은 110억원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이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자 : 옳습니다. 이회창이 지금 자기의 호화주택과 관련해서 사돈이 구입해 준거라느니 누구의 것이라느니 하면서 거기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구차한 변명들을 하지만 정치인으로 자처하는 그가 4층, 3층, 2층의 호화빌딩에서 그 일가족들이 살고 있다는 건 도저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고급주택을 쓰고 사는데 드는 엄청난 자금을 어디서 충당하겠어요. 그게 다 부정협잡의 방법으로 빨아낸 돈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거죠.
그런데 이회창의 부정비리는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윤정원 : 지금 정계에서는 물론이고 국민 각계에서 화제의 초점으로 되고 있는 ≪세풍사건≫을 놓고 봐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건은 국세청이 특정 정당을 위해 선거자금을 받아냄으로써 사회기강을 문란케 한 추악한 사건아닙니까. 1997년 대선당시 국세청장과 차장은 24개 기업에서 무려 166억원을 빨아내 한나라당에 대선자금으로 전달했고 이회창은 대선의 직접적 당사자로써 그것을 막후조정하고 자금을 총괄했습니다. 이회창의 사조직인 부국팀이 국세청을 동원해서 대선자금 모금방법을 담은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검사의 중간수사발표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죠. 또 이회창자신이 직접 국세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금모금을 청탁을 했고 대선자금을 낸 기업인들에게 감사전화를 한 사실도 공개됐어요. 지금은 ≪세풍사건≫의 핵심으로 추격을 받아오던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미국에서 체포됐어도 이씨가 소환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마무리단계에 이른 수사를 중단하고 있지만 이회창이 이 사건의 주역으로 활약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사회자 :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5명이 구속되고 1명의 전 국회의원이 불구속기소되는 등 모두 7명이 재판에 회부됐지만 이회창은 이 전차장의 해외도피를 구실로 자기의 개입을 부인하고 있고 이회창패당도 사전공모는 터무니없는 얘기이며 측근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이라고 뻗치고 있습니다. 이회창이 지난 시기 이 사건과 관련해 두차례에 걸쳐 대국민사과성명을 발표한 점을 통해 봐도 그는 절대로 ≪세풍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회창의 부정비리에서 ≪세풍사건≫과 함께 ≪안기부선거자금횡령사건≫도 그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요.
윤정원 : 그렇습니다. ≪안기부선거자금횡령사건≫은 지난 95년 총선당시 안기부가 국가예산을 전용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900억원을 조성해 그것을 신한국당 총선자금으로 쓰는 그런 부정비리 사건이었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의장이었던 이회창은 불법전용한 안기부자금을 183명의 같은 패당들에게 나누어주고 자기는 거액의 자금을 부당취득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도 흑막속에 가려진 상태로 있으니 분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회창은 오히려 도둑이 매를 드는 격으로 보복은 보복, 피는 피를 부른다며 도전해 나섰는데 정말 철면피함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죠.
사회자 : 이회창은 바로 그런 자이기 때문에 아들의 병역기피를 위해 병무청관계자들에게 거금을 찔러주고 뻔뻔스럽게도 아들 키가 179센티미터가량 되는데 체중이 43킬로그램도 못나가는 체중미달판정을 받게 했고 법관의 감투를 썼을 때에는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한 열혈 청년들과 애국인사들에게 극형과 중형을 마구 선고하면서도 일반 사범들에게는 동전을 넣어야 작동이 되는 공중전화를 아는가고 강박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돈을 빨아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회창후원회와 부국팀 등 사조직들을 발동해서 대선자금을 마련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돈을 끌어들이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윤정원 : 그리고 보면 이회창이야말로 가장 비열하고 가장 너절한 부정비리의 왕초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죽했으면 한나라당의 어느 국회의원까지도 ≪이회창이 걸핏하면 법치주의를 외치지만 그의 뒤가 더 더러워요. 이제 내 입만 터져보죠. 이회창의 부정비리를 쫄딱 발가놓고야 말거라구요.≫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여러층에 걸친 고급주택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집이 없어 고생하는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등의 궤변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속을 우리 민중이 아니죠.
사회자 : 이회창은 자기의 추악하고 비열한 부정비리와 부정부패 행위를 가리우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 민중은 결코 국민을 기만하고 못된 짓만 골라하는 그를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각계 민중은 이회창의 부정비리진상을 밝혀내고 그를 정계에서 축출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사회자 : 극악한 반통일역적이고 부정부패의 왕초인 이회창과 같은 자가 절대로 대통령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하겠죠. 이회창과 같은 자가 권력을 쥐게 되면 조국통일이 요원해 지는 건 물론 한국사회가 일대 파국에 놓이게 될겁니다. 정치, 경제생활이 지저분하기 이를데 없는 이회창과 같은 추물이 대통령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우리 민중은 이회창과 같은 자에게 절대로 찍지 않을 겁니다. 이회창의 대통령꿈은 오뉴월 개꿈으로 끝날 겁니다.


이회창은 법관의 감투를 썼을 때 동전을 넣어야 작동이 되는 공중전화를 아는가고 강박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돈을 빨아냈다

치졸한 행위의 극치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26일

예로부터 뱃속에 욕심만 가득찬 인간은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 인간은 어떤 물건에 열개중 아홉개를 자기가 가지고 남이 한개만 가졌어도 심술이 꿈틀거려 참지 못한다. 때문에 그 한개마저 빼앗아내기 위해 온갖 권모술수를 다 부린다.

한나라당의 이회창이 바로 그런 자이다. 이회창패거리들이 충청북도지사를 찾아가 자민련에서 탈당하고 한나라당에 들어오도록 강요한 것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최근 이회창패당들은 충북지사를 찾아가 자민련의 지지도가 급속히 떨어지고 있으니 자민련에서 탈당하고 한나라당에 들어올 것을 강요했다. 그 전에도 이회창은 여러 차례나 충북지사를 만나 그같은 요구를 제기했고 끝내 그를 한나라당에 끌어들였다. 이것은 이회창이 당의 내분사태를 막고 세확장을 위해 얼마나 비열하게 책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물론 천하에 둘도 없는 매국역적이고 협잡꾼인 이회창에게서 올바른 행동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 집을 수리한다는 구실로 남의 집 재산을 강도질하는 것과 같은 식의 졸렬하고 무례한 작태에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회창패거리들의 이 불법무도한 졸속행위는 가장 비열한 정치테러인 동시에 이회창의 비도덕성과 추악성을 다시금 입증하고 있다.

원래 이회창은 도덕과는 담을 쌓고 있는 무례한이고 건달꾼이다. 대학시기만해도 그는 동도극장이나 클래식다방을 드나들며 주색에 미쳐 돌아쳤다. 그가 미국 음악에 심취되어 시간가는 줄 몰랐던 것도 그 음악속에 광적인 환상의 나래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그가 권투를 한답시고 여기저기 돌아치며 배운 것이란 사기협잡과 절도, 폭행 등의 방랑아적인 생활양식이다.

법관의 감투를 썼을 때에도 이회창은 의로운 민주인사들과 애국학생들에게는 파쇼악법을 휘둘러 부당하게 사형을 비롯한 중형을 마구 선고하면서 살인, 강도, 폭력,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온갖 사기협잡을 다해 돈을 빨아내고 그들을 비호두둔하며 사회악을 더욱 조장시켰다.

세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이런 비루하고 추악한 행로를 거친 이회창이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에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도끼론≫, ≪창자론≫, ≪씨말리기론≫은 깡패보다 못한 그의 추한 야성을 보여준 것이고 청렴결백과 대쪽인물을 광고하면서 돈을 빨아내기에 혈안이 되어 날뛴 것은 지독한 돈벌레의 습성을 드러낸 것이다.

정계에 입문한이후 그는 이회창후원회와 같은 사조직들을 동원해 합법적으로 돈을 빨아들였다. 근래에 와서는 후원회외에도 ≪국가혁신위원회≫와 ≪부국팀≫ 등 각종 사조직들을 발동해 돈을 빨아내는 한편 대재벌의 1세, 2세들에게서 막대한 자금을 부정착복하고 있다.

최근 호화빌딩과 최고급승용차 등 이회창의 부정비리행위가 여론의 초점으로 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회창이 그것도 부족해 이제는 비열한 모략과 정치협잡으로 사람까지 강도질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분격할 노릇인가. 기회있을 때마다 3김청산을 부르짖던 이회창이 다른 야당의 국회의원을 날치기로 빼앗는 행위야말로 3김시대에서 흔히 썼었던 희세의 정치모략이고 비도덕적인 미친 짓이 아니겠는가.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는데 그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3김청산을 떠들었는지 해괴할 뿐이다. 지금껏 배우고 눈에 익힌 것이 민족반역과 국민기만행위밖에 없는 이회창이 다른 야당의원을 빼돌려 **하는 것쯤은 예사로운 일로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정상인으로써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몰염치이고 날강도적인 부정협잡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회창이 불법무도한 행위를 거리낌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세력을 확장해 대권욕을 이루어보려는데 있다.

그러나 이회창이 권력욕에 환장해 마구 날뛰는 것은 실현불가능한 어리석은 망상이다. 실제로 이회창의 지지기반인 한나라당에서는 그의 반역행위와 저질행위에 환멸을 느끼고 한나라당에서 탈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마치 이회창이라는 초라한 나무에 붙어있던 잎사귀들이 마가을의 낙엽처럼 후두둑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회창이 다른 나무의 잎사귀를 뜯어다 자기에게 붙인다고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것은 제 운명을 다 산 가련한 존재의 단말마적 발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 민중은 희세의 민족반역자이고 부정비리의 왕초이며 천하에 둘도 없는 정치깡패인 이회창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각계 민중은 비열한 정치모략과 권모술수로 대권욕을 채우려는 이회창을 축출해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집안싸움으로 깨질 조짐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27일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한나라당의 내분사태가 날로 심각해져 곧 깨질 조짐을 안고 있습니다.

박근혜부총재가 이회창의 독단, 독선주의를 비난하며 탈당을 선언한데 이어 홍사덕의원이 25일 집단지도체제도입 등이 선행되지 않는데 분격해 탈당을 시사했고 김덕룡의원도 곧 탈당할 의사를 비쳤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부총재 전원이 사퇴하는 등 많은 의원들이 한나라당을 떠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회창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바 강삼재의원은 이회창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강하게 비난했으며 또 김원웅의원은 이회창이 경선에 나서면 당내분사태가 더욱더 심각해진다며 경선에 나서지 말 것을 권유했습니다.

한나라당 내분사태가 날로 심각해져 깨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것은 이회창의 반민족, 반통일, 사대매국행위가 가져다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집권욕과 부귀영화에 환장한 이회창은 입만 벌이면 통일을 반대하고 미일 상전들에게 아부아첨하는 망발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회창은 4.8합의서와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될 때에도 앞장에 서서 시비하더니 이번에도 또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특사파견에 대해서 악담을 늘어놓았습니다.

미국상전에게 잘보여 어떻게 해서라도 청와대에 입주해보려는 친미사대매국노 이회창은 우리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미국의 ≪핵태세 검토보고서≫까지 찬성하는 반역적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사에는 집권욕을 실현하기 위해 돈을 뿌리고 사람들을 매수한 사례는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회창과 같이 외세에 추종하여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악한 짓도 거리낌없이 자행한 사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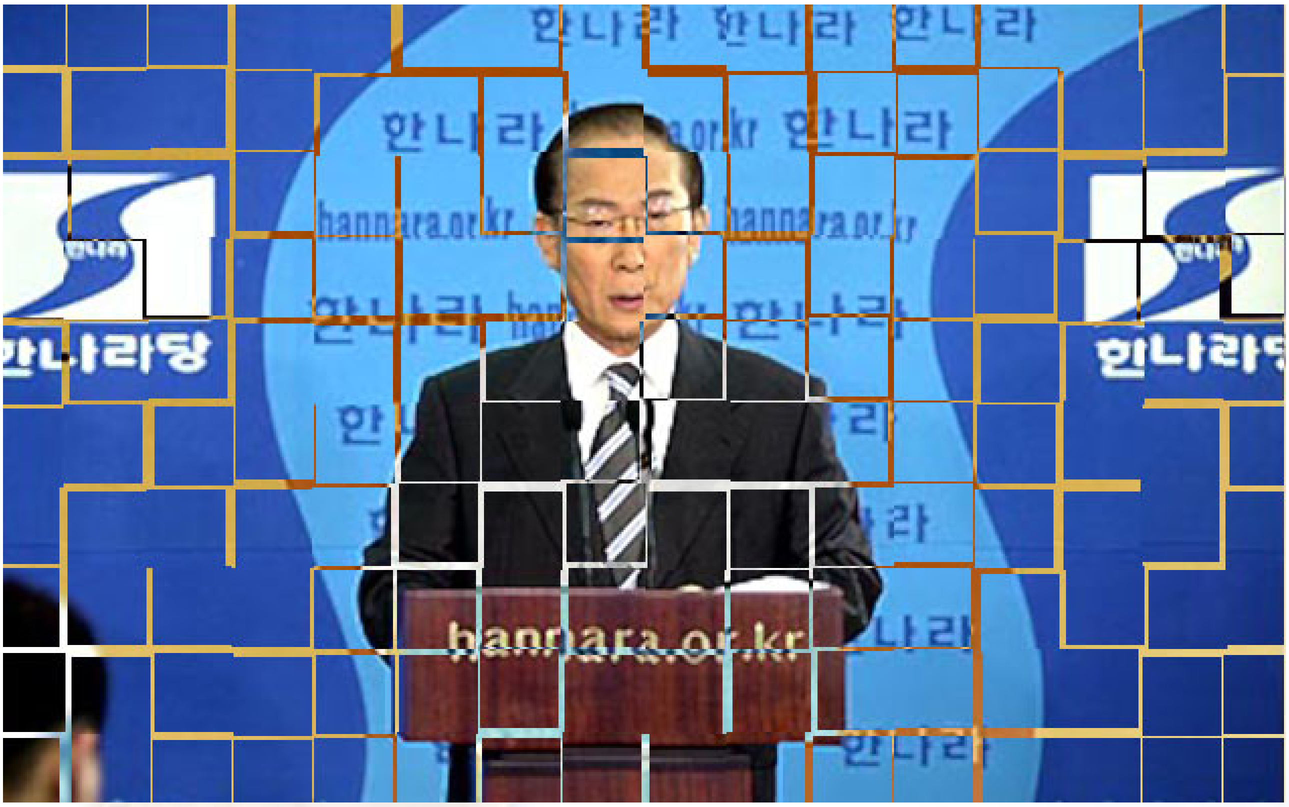
이회창이야말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반민족, 반통일, 사대매국노, 역적중의 역적이며 집권을 위해 환장한 정치야심가, 남을 물어뜯기를 좋아하는 사냥개, 공짜를 좋아하는 부정부패자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계 민중은 마을에 미친개가 있으면 ****는 것처럼 민족안에 이회창과 같은 인간쓰레기가 있으면 불상사만 생긴다며 그를 즉시 은퇴시켜 백담사로 보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각계 민중의 이런 목소리는 어느모로 보나 정당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회창이 홍역을 치르고 있는 당내분사태를 수습해보려고 발악하고 있지만 어떤 명의도 좋은 처방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공중분해 될 사태까지 직면한 한나라당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처방은 이회창이 정계에서 즉시 퇴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응어리를 그대로 두면 상처가 아물지 않듯이 이회창을 제거하지 않으면 당내분사태가 더욱 심화되어 결국은 멸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회창과 손잡고 나가는 길이 곧 역사와 민족앞에 대죄를 짓는다는 걸 명심하고 한나라당을 떠나 애국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6.15선언 제동 거는 자들에겐 앞길 없다

김광철 / 구국전선 제473호 주체91, 4월 1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미일상전들의 환심을 사서 대통령의 자리를 따보려고 동분서주하면서 나라와 민족 앞에 죄악을 덧쌓고 있다. 미국에 이어 지난 3월11일 일본에 가서도 그는 천추에 용납못할 반역행위를 저질렀다.

이회창은 일본기자구락부에서 6.15공동선언이 이행되지 않고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고향방문이 중단되고 있는 책임이 북에 있는 듯이 허튼 소리를 줴쳤다. 그는 ≪신뢰성≫에 대해 운운하면서 존엄있는 이북의 정치체제까지 걸고드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일본상전에게 ≪북의 대량살상무기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하며 ≪동아시아국가간, 다자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등으로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감히 동족을 해쳐보려는 흉악한 속심을 드러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월 방미과정에서 통일지향의 민족감정을 건드림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으로 된 호전광 부시의 ≪악의 축≫망발을 적극 지지하는 쓸개빠진 짓도 하였다. 이 모든 험담들은 민족반역자, 친미친일 2중주구로서의 이회창의 더러운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놓은 것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남북사이의 대결과 불화를 조장하며 동족을 모해하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이회창의 고약한 악습이다.

온 민족과 세계가 적극 지지환영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처음부터 반대하고 6.15공동선언을 갖은 악담과 시비질로 긁어내리며 ≪상호주의≫니, ≪검증≫이니, ≪투명성≫이니 하고 그 이행에 제동을 거는 자도 다름아닌 이회창이다.

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남북사이에는 여러차례에 걸쳐 장관급회담이 개최되었고 고향방문단교환사업도 3차례나 실현되었다. 그외에도 민족의 단합과 자주, 통일에로 움직이는 우리 민족의 장엄한 흐름을 온 세계가 경탄의 눈으로 쳐다봤다.

민족의 단합과 자주통일에 유리하게 흐르던 한반도의 정세는 미국에서 호전광 부시의 집권과 그의 대북적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일시에 대결과 전쟁분위기로 바뀌었다.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부시는 애당초 공동선언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미제는 이 땅을 영구강점하고 그곳을 발판으로 한반도와 나아가서 아시아를 거머쥐려는 침략적인 야망으로부터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극력 반대하면서 이북에 대해서는 강경고립압살정책을 실시하고 김대중정권에 대해서는 ≪남북관계가 지내 빨리 간다≫느니, ≪속도를 조절≫하라느니, 미국의 승인하에서만 ≪북과 관계를 가지라≫느니 하고 강박했다. 오늘 6.15공동선언이 민족의 의사와 염원에 맞게 이행되지 못하고 남북사이의 모든 교류와 협력이 차단되어 있는 것은 호전적인 부시행정부의 대북고립압살책동때문이다.

이회창이 한쪼각의 민족적 양심이라도 있고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마음이 티끌만큼이라도 있다면 응당 공동선언이행을 악랄하게 반대하는 미국에 항의해야 옳았다.

그런데 그는 공동선언을 유린말살하려는 미국을 추어주면서 공동선언이행을 위한 당사자의 대방인 이북을 악의에 차서 헐뜯었다. 심지어 이자는 지난 1월 부시행정부의 강경매파들을 찾아다니면서 동족을 모해압살해 줄 것을 청탁했는가 하면 미국의 대북전쟁책동에 맞장구를 치며 북을 악랄하게 중상모독해 나서기까지 하였다. 이것은 그가 공동선언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오직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집행의 하수인으로 발벗고 나섰다는 것을 말해 준다.

최근에 북을 겨냥한 미국의 핵태세보고서로 말미암아 핵전쟁위험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때에 이회창이 일본을 방문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통일을 외면하고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아부한 것도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팔고 반북열을 올린 대가로 제2의 상전의 지지를 얻어 권력의 자리를 차지해 보려는 비열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회창은 국민들 속에서 확산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위협 ≪악의 제국≫미국에 대한 분노, 미국과 공조하여 한반도전쟁위협에 혈안이 되고 있는 일본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오늘 미국호전세력들의 무모한 반북책동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정세는 또다시 위험천만한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다.

전쟁이냐 평화냐, 민족의 파멸이냐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느냐 하는 이 준엄한 시각에 미국의 전쟁책동에 맞장구를 치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더 큰 반역은 없다. 이회창과 같은 사대매국노, 민족반역자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자주도, 민주도, 통일도 실현할 수 없고 민족재난을 면할 수 없다.

애국적인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주단체들은 민족반역자 이회창을 정계에서 제거해 버리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을 민족내에서 매장해버려야 할 것이다.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길로 매진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으로 단결된 우리 민족의 거세찬 통일대행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역사적 대세로 되고 있다. 6.15공동선언의 이행에 제동을 거는 자들에겐 앞길이 없고 민족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만 안겨질 것이다.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담화

오늘 우리 민중은 주체태양을 우러르는 만민의 송가가 하늘땅을 진감하고 있는 역사적 시기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발표 20돌을 맞고 있다.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정력적인 사상이론활동을 벌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71(1982)년 3월31일 고전적 노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시었다.

사상이론의 영재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노작에서 주체사상의 창시와 그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적 원리, 지도적 원칙과 역사적 의의에 대하여 정연하게 정립하시고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독창성, 과학성과 혁명성을 철의 논리로 심오하게 밝히시어 주체위업수행에서 제기되는 이론실천적 문제들에 명철한 해명을 주시었다.

불후의 고전적 노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그 심원한 원리들과 사상이론들을 가일층 심화발전시킨 주체사상의 불멸의 총서이다.

이 불멸의 고전적 문헌은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귀감이시며 인류의 영재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내놓으실 수 있는 인류사상사의 영세불후할 기념비이며 장군님의 사상이론적 업적가운데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세계사적 대공적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노작을 발표하시어 어버이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 지도이론, 지도방법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되었으며 우리 민족과 인류는 주체사상의 심원한 원리들을 깊이 인식하고 혁명실천에 정확히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주체의 사상이론적 보물고를 받아안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노작은 발표되자마자 내외의 폭풍같은 환호속에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번역출판되었으며 지난 20년간 자주성을 위한 우리 민족과 인류의 투쟁을 승리에로 향도하는 혁명의 교과서, 주체사상의 대백과전서로 그 정당성과 불패의 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이북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따라 주체의 기치드높이 역사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짓부수며 노작에서 천명된 탁월한 사상과 이론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여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을 창조하였다.

오늘 이북민중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치시는 희세의 영장 **김정일**장군님의 영도따라 20세기를 주체사회주의수호전의 자랑찬 승리로, 영광찬 **김일성**세기로 더욱 빛나게 장식하고 21세기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영마루를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천재적인 사상이론활동과 현명한 영도에 의해 주체사상은 현시대의 유일무이한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공인되고 주체사상을 따라배우고 구현해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세계적 추세로 되었다.

오늘 세계 100여개 나라들에서 1천백여개의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주체사상에 관한 연구토론회는 세계적 규모에서 광범히 진행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노작은 우리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삶의 좌우명으로, 투쟁의 지침으로 되고 있다.

고전적 노작을 받아안은 각계애국민중들 속에서는 주체사상신봉자대열이 날로 확대되었으며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앞당겨오기 위한 투쟁이 강화발전되고 있다.

더욱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민족자주통일강령인 6.15남북공동선언을 마련해주신 이후 경향각지에서 **김정일**숭배열풍이 거세차게 휘몰아치는 가운데 지난해에만도 서울에서 ≪주체사상대토론회≫가 두차례나 공개적으로 열리었으며 오늘도 학계에서 주체사상연구가 계속 심화되고 인터넷을 통해 주체사상관련노작들이 대대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탁월한 사상이론과 특출한 영도실력으로 민족과 인류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영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어 조국의 자주적 통일도 민족의 부강번영도 문제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민중의 심장속에 간직된 철석의 신념이고 불변의 의지이다.

우리 한민전의 전위투사들은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절대적인 신봉자,관철자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나갈 것이며 전국민과 함께 주체의 기치높이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과감한 투쟁으로 민족자주통일의 새날을 앞당겨오고야 말 것이다.

주체91 (2002)년 3월 30일
서울

미국의 대북핵전쟁도발광증을 규탄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성명

지금 반테러의 구실하에 감행되는 미국의 대북핵전쟁도발광증은 날이 갈수록 내외의 거세찬 항의와 배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땅의 각계층 민중은 이북을 핵선제공격대상국으로 지정한 미국의 ≪핵태세 검토보고서≫를 우리 민족멸살을 겨냥한 가공할 핵전쟁계획으로 낙인하고 결사 반대배격해 나서고 있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도 미국의 ≪핵태세 검토보고서≫를 냉전시대의 산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기를 갈망하는 인류의 염원에 대한 유린행위로 단죄규탄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내에서까지 ≪핵악당≫으로써의 미국의 실체를 폭로하고 철없는 어린애가 내는 짜증으로 야유하면서 핵참화속에서의 미국의 파멸을 스스로 초래할 무모하고 어리석은 핵공격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나서고 있다.

이에 당혹해하는 부시행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을 것이라느니 보고서는 그 무슨 하나의 이론적인 가설이라느니 국가정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느니 뭐니 하며 구구한 변명을 해 나서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뻔뻔스러운 요설은 핵무기선제공격전략을 가리우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 미호전광들의 ≪핵태세 검토보고서≫는 가설이 아니라 21세기를 핵전쟁의 세기로 만들려는 부시행정부의 무모한 핵무기사용정책을 드러낸 전쟁도발계획이다.

오늘 미국의 핵전략은 보복전략에서 선제공격전략에로 급전환되고 핵공격대상은 적전핵보유국에서 비핵국가에로 확대되었으며 핵무기사용기준은 최후의 전략수단으로부터 전시만이 아닌 평화시기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의 이같은 핵무기는 전쟁억제력이 아니라 전쟁추동력으로, 견제무기가 아니라 선제공격무기로, 전면전쟁용만이 아니라 국부전쟁용으로 탈바꿈하였다.

특히 우리 민중의 격분을 자아내는 것은 부시행정부의 범죄적인 첫번째 핵전쟁조준점이 한반도라는데 있다. 미국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이북을 핵공격대상국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땅에서 사상최대규모의 통합군사연습을 벌여놓았다.

부시의 서울행각은 대북핵선제공격계획의 최종점검이었으며 이번 대규모 한미통합군사훈련은 그 계획 실행을 위한 실동연습이었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부시전쟁내각의 우두머리들이 이북의 있지도 않은 핵문제와 미사일문제를 여론화하면서 동해상에서의 이북선박나포와 격침문제까지 떠들어대고 있는 사실이다.

제반 사실은 ≪핵태세 검토보고서≫가 명백한 핵전쟁계획이며 한반도에서 미국의 대북핵전쟁발발은 시간문제로써 이제 전쟁도화선에 불을 다는 것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은 미국의 무분별한 핵전쟁도발책동을 우리 민족을 전멸시키려는 천추에 용납못할 대범죄행위로 세계를 핵참화속에 몰아넣으려는 반인륜적 행위로 낙인하고 전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반대, 규탄한다.

핵재난은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현실적 위협으로 우리 민족앞에 시시각각 다가서고 있다. 이북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은 이남에 대한 핵공격이며 한반도에서의 핵전쟁발발은 곧 우리 민족의 전멸을 가져오게 된다.

오늘의 긴박한 시국은 각계 민중에게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민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미국의 대북핵전쟁기도를 단호히 짓부수고 민족의 생존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반미반전투쟁에 한사람같이 일떠서야 한다.

각계각층 민중은 일치단결하여 6.15공동선언의 기치 드높이 한국 호전분자들의 반민족적인 대미전쟁공조를 저지파탄시키며 민족공조로 자주적 평화통일의 새 날을 앞당겨와야 한다.

미국은 대세의 흐름을 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북핵공격기도를 당장 철회해야하며 이 땅에서 핵전쟁의 온상인 미제침략군과 핵무기들을 즉각 철수해야 한다.

우리 한민전은 민족의 자주권과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전국민과 함께 미국의 악랄한 핵전쟁도발책동을 반대하는 반미반전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차게 지펴나갈 것이며 미제가 끝끝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이북 형제들과 어깨 겯고 ≪악의 제국≫ 미국을 영영 쓸어버리고야 말 것이다.

주체91(2002)년 4월 1일
서울

주체 91년 태양절을 뜻깊게 맞이할 데 대하여

청년주체주의자동지들에게 보내는 통보(통일여명 편집국 보도 66호)

올해 태양절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탄생하신지 90돌이 되는 대경사의 날이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일만년 민족사에 처음으로 위대한 태양이 솟아오른 7천만겨레의 대명절이며 영원무궁할 주체시대의 여명이 밝아온 역사적인 대축일이다.

김일성주석님의 한생은 천재적 예지와 탁월한 영도, 숭고한 덕망으로 혁명역사위에 불멸의 혁명실록을 아로새기신 찬란한 태양의 역사이다.

조국광복의 은인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온갖 노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어 조국통일3대헌장을 마련하시었으며 조국통일의 활로를 개척하시었다.

어버이주석님께서는 주체혁명위업의 계승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시었으며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수령영생위업을 이룩하시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사상이론, 특출한 영도실력, 거룩한 풍모의 모든 면에서 어버이주석님 그대로이신 백두의 천출위인이시다.

특히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주석님의 통일유훈을 구현하시며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발표하시며 민족자주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주시었다.

오늘 온 인류가 우러르는 절세의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을 통일혁명의 최고영도자로 모시고 있는 한 남측변혁과 조국통일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애국민중들과 함께 올해 태양절을 주체시대의 최대명절로 뜻깊게 빛내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1. 태양절을 맞이하여 어버이주석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올리는 글을 발표한다.

2. 태양절이 있는 4월을 ≪태양절기념월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준비정도와 실정에 맞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영도와 통일혁명전략을 연구토론하는 모임을 비롯하여 기념강연회, 논문발표회, 영화감상회, 총화모임 등 다채로운 정치, 문화 행사를 조직진행한다.

3. 이 기념월간동안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전권, 고전적 노작 ≪조선노동당의 역사적 경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주체사상에 대하여≫와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를 깊이 학습한다.

4. 태양절을 전후해서 청년주체주의자대오의 대외기관지인 ≪통일여명≫과 ≪6.15주간≫을 경축특간호로 발행하며 피디에프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발간한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향도따라 자주민주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측청년주체주의자대오
통일여명편집국 6.15주간편집부 인터넷구국의소리편집인
주체91 (2002)년 4월 1일
서울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예술론을 깊이 연구하자!

통일여명 편집국 (편집국 보도 75호)

≪진실로 사실주의적이고 혁명적인 문학과 예술은 인간생활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한 세계를 사람들에게 보여 줍니다.≫(**김일성**주석, **김정일**장군의 ≪영화예술론≫에서)

≪문학예술에서 종자란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이다.≫(**김정일**장군, 영화예술론)

무릇 영도자의 위대성은 사상, 영도, 풍모의 세가지 측면에서 표현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상과 이론의 위대성은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세계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절세의 위인으로 우러르는 데에는 영도업적과 도덕풍모의 위대성에도 크게 기인하지만 무엇보다도 장군님의 사상이론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사상이론활동은 한없이 심오하고 비상히 방대하다는 데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인문과학, 사회과학, 그리고 자연과학 분야에 걸쳐서 최고경지에 도달하신 천재 중의 천재이십니다.

우리는 **김정일**장군님의 사상이론적 천재성을 예술관련 노작을 통하여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개하는 ≪영화예술론≫과 ≪무용예술론≫, ≪건축예술론≫, ≪음악예술론≫, ≪미술론≫, ≪주체문학론≫은 그 자체로 인류예술이론사에 빛나는 불후의 노작, 불멸의 금자탑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벌써 70년대초 ≪영화예술론≫에서 불의 발견에 비유되는 종자론을 비롯하여 영화창작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백과전서적인 해답을 주시었습니다. 영화가 종합예술인 만큼 장군님께서는 그 때 이미 모든 예술에 정통하시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 수십성상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영도하시면서 예술론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었으며 90년대에는 이를 각종 예술론으로 집약하시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편집공개하는 장군님의 예술관련 노작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장군님의 예술론을 접하고자 하는 열망은 다른 동지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아마 우리처럼 애를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양방송의 김일성방송대학강좌나 한민전의 구국의소리방송을 녹취채록하는 것으로부터 해서 동원하지 않은 방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송녹취채록물은 부분부분 탈자가 적지 않고 국내에 출판된 노작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해 말 인터넷에 장군님의 예술관련노작이 연달아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선전일군들에게 이보다 흥분되고 기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한편 공개자료에 ≪주체문학론≫처럼 일부 누락된 부분이나 부분 오자가 있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간 우리가 구해 보관하고 있던 녹취채록물이나 기타 자료를 통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공개하는 자료는 지난 공개자료보다 완성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지들이 예술론을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일일이 강조표시를 하였습니다. 통일여명식으로 보기편리하게 편집한 것도 물론입니다.

우리는 **김정일**장군님의 이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을 연구하면서 장군님의 위대성을 새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장군님의 예술론은 인류예술이론발전의 최고봉에 이른 걸작 중의 걸작들입니다. 우리는 장군님의 예술론을 학습하면서 예술에 대한 안목도, 사업과 생활도 혁신하였습니다.

우리 통일여명편집국을 비롯하여 청년주체주의자들에게 이보다 중요한 교재가 없습니다. 우리는 동지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예술론을 깊이 연구할 것을 진심으로 권고합니다.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1(2002)년 4월 1일
서울



나주 농민회, 청년회 등 통일쌀 보내기 운동

농촌도 살고, 북한 식량난도 해결, 일석이조 통일운동

지난 20일 나주 영산포 장터는 나주 농민회, 나주사랑 청년회를 비롯 13개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통일 쌀 보내기≫ 모금운동과 선전전으로 떠들석했다. 모금함과 피켓을 든 농민회 간부들의 넉살좋은 표정이 과자 파는 아주머니나 잡화상 아저씨 주머니에서 천원짜리, 백원짜리를 선뜻 꺼내놓게 만들었다.

이동탁 씨(나주시 농민회 연대사업부장 · 31)는 ≪정부가 지난해 쌀투쟁 당시 대북지원을 약속한 3백 만섬을 일찍 보내야 한다≫며 ≪빨리 재고량을 처분하면 수매량이나 쌀가격을 유지해 농민들 생존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정책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또 ≪통일 쌀 보내기 운동이 말만 앞서는 통일 정책에서 진정한 자주교류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일 쌀 보내기 운동은 지난 4일부터 3일간 면 단위 천막농성을 통한 선전으로 시작됐다. 14개 면에서 진행된 이번운동은 현재 40kg 60가마 및 1백 만원의 현금 모금이 노안면을 비롯한 동강면, 동산면에서 이뤄진 상태. 이는 이장단 회의 및 농협에서 마련한 보답대회 등을 통해 농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어내려던 노력의 결실이었다.

노안면의 경우 농민회 활동이 미약해 이장이 자신의 사비로 일정액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한 주민이 직접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80kg 2가마니를 모으는 모습도 보여줬다. 이 씨는 ≪단지 불우이웃 돕기가 아닌 통일의 한걸음이기에 농민들의 호응이 있었다≫며 ≪동강면에서는 전국적인 운동 확산을 위해 포대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해 의견이 반영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 나라의 60%가 쌀 농사만 짓는 상황에서 쌀 수입개방은 곧 농민의 붕괴≫라며 ≪≫통일 쌀 보내기 운동≫은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런 차원에서 ≪쌀 수입 개방 반대와 정부의 대북지원 조기실현≫을 목표로 하는 서명운동 및 선전전이 함께 이루어졌다고.

한편 여성농민회는 한 되 짜리 비닐 봉투를 제작해 이번 운동을 전개했다. ≪6 · 15 통일 분위기를 만들며 특정에 맞게 통일운동을 할 수 있는 계기였다≫는 이연옥 씨(나주시 여성농민회 조직 부장). 그녀는 ≪많은 주민들이 함께하는 통일 흐름이었다≫며 ≪농민회 회원이 아님에도 노안면 회장은 비닐봉투를 나눠주고 일일이 수거하는 노력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상당량의 쌀을 모아냈다≫고 전했다.

≫남은 문제는 통일 쌀 보내기 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이다≫는 안주용 씨(나주 농민회 사무국장)는 ≪다른 시군농민회도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차원의 대북 지원 허가를 받아내는 것 역시 운동의 목표이므로 계속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농민회는 다음달 3일 영농 발대식을 통해 통일쌀보내기 운동을 1차 마감하고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갖는다. 모아진 쌀과 돈은 벼로 환산해 아리랑 축전에 즈음하여 북쪽에 전달하게 된다.

전남대 백지선 기자
2002/04/03 유뉴스

학술답사등 ≪대학가 금강산 관광 열풍≫

경희대, 연세대, 동국대, 항공대 등 4월중 출항

정부의 금강산 지원대책이 발표되면서 학술답사를 비롯해 수학여행 등지로 금강산을 찾는 이른바 금강산열풍이 대학가를 강타하고 있다.

2일 연세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연세대, 경희대 학생들은 지난 2월 7일 기자회견 후 첫 번째 결실로 4월 4일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130명과 연세대학교 금강산 답사단 23명이 금강산으로 통일체험을 하러 간다고 밝혔다.

경희대 지리학과는 학과 특성에 맞게 ≪학술답사≫로 진행되며, 연세대는 5월 첫 주 약 300여명의 과 · 반동아리 금강산 수학여행을 위한 답사단으로 가게 되며 방중 금강산 여행을 2차로 계획중이라고 전했다.

이들 대학 외에 현대아산을 통해 확인된 4월 중 금강산사업을 진행하는 학교는 16일 항공대 학생 40명과 부산지역의 부산대, 동아대를 비롯한 5개 대학의 40명,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학생 40여 명 등이다.

항공대는 새내기 10여명을 포함한 금강산 답사단이며 부산대, 동아대, 경성대, 경상대, 신라대 등은 과학생회장이 주축이 되어 역시나 답사단 형식으로 가게된다.

동국대 북한학과는 교수, 동문, 학과학생들이 주측이 돼 지난 2학기부터 꾸준히 준비해오다 이번 정부지원 방침으로 현실화됐다. 동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관광단 모집을 해왔던 이승준(북한학과 학생회장 · 3)씨는 ≪과 특성상 오랫동안 고민해오던 일이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공론화하지 못했던 일이었다≫며 ≪정부지원이 발표되면서 대규모 모집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동국대 북한학과는 정해진 관광코스 외 금강산 관광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백영순 기자
2002/04/02 유뉴스



만악의 근원,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24일~26일

이 땅에 기어들었던 부시는 오산 미공군기지에 찾아가 북이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망언을 늘어놓으면서 한국의 자유과 평화를 위해 이 땅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이것은 이 땅을 군사적으로 계속 장악하고 나아가서 이북을 침략하고 아시아를 정복하려는 미국의 전략을 다시금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 땅에 미제침략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은 한국을 수호하고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한반도분열과 한국에 대한 군사적 강점을 고정화하고 새 전쟁을 일으켜 이북과 아시아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로부터 미국은 한국강점미군무력을 체계적으로 늘려왔습니다. 특히 부시호전집단이 집권한이후 한반도정세는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부시호전세력의 북에 대한 노골적인 침략위협과 전쟁소동으로 한반도정세는 초긴장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주한미군으로 말하면 한반도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려는 부시호전광의 죄행을 실행하기 위한 제1선의 무력입니다. 한반도문제해결의 기본열쇠는 이 땅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는데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하는 것은 우선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실현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주되는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미제침략군이 이 땅을 강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나라가 분열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반세기가 넘는 오늘까지 민족분열의 고통을 강요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분열되어 지난 6.25전쟁의 비극을 겪은 것도, 오늘까지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리고 한반도가 전쟁위험이 깃든 세계최대의 위험지대로 되고 있는 것도 다 미제침략군이 이 땅을 강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분열을 막을 수 없고 민족최대의 숙원인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을 하루빨리 철수시켜야 하는 것은 한국강점 미제침략군이 전쟁의 화근이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면서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수만명에 달하는 침략군을 이 땅에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 한반도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한국강점 미제침략군무력을 끊임없이 증강하고 각종 최신형 군사장비와 대량살상무기들을 연속 끌어들여 이 땅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로, 핵전초기지로 전변시켜 놓았습니다. 미제침략군은 북을 반대하는 군사도발과 대규모 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면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휴전협정이후 지난 2000년말까지 미제침략군이 감행한 군사적 도발사건은 무려 15만여건에 달하고 전쟁연습은 1만여건에 달합니다. 미제침략군은 또한 최신형의 아파치헬기와 신형 탱크, 장갑차들을 이 땅에 끌어들였고 각종 신형미사일들을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북침전쟁을 실전에 옮기기 위한 한미합동전쟁연습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제침략군은 ≪을지≫, ≪독수리≫, ≪연합전시증원연습≫ 등 대규모의 한미합동전쟁연습을 연례행사처럼 벌여왔고 지금은 ≪독수리≫와 ≪연합전시증원연습≫을 합쳐 대규모의 전쟁연습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시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북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악의 축≫망언과 때를 같이해 대규모 전쟁연습이 벌어지는 것으로 해 그 위험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미제침략자들이 벌이는 이번 전쟁연습이 실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건 누구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미제침략군에 의해서 한반도에서 언제 어느 시기에 전쟁이 터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제반 사실은 주한미군이야말로 한반도에 새 전쟁을 몰아오는 불씨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이 땅에서 당장 철수돼야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민중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강점한 미제침략군은 야수이고 인간살육집단입니다. 미제침략군이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은후 그들에 의해 우리 국민들이 피를 흘리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미제살인귀들에 의해 광복후 분단 45년 9월부터 1950년 1월까지의 기간에만도 무려 30만명의 무고한 민중들이 학살당했습니다.

미제야수들의 살인귀적 본성은 6.25전쟁시기에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전쟁을 도발한 미제야수들은 1년동안에만도 이 땅에서 백만명이상의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했고 전쟁3년간 남북전역에서 300만명이 넘는 양민을 무참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뒤로도 살인귀들의 야수적 만행은 휴전후 오늘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인, 폭행, 방화, 강간, 강도행위들이 미제침략군의 발길 닿은 곳마다에서 감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강점후 지금까지 세상에 드러난 미군범죄건수만도 무려 27만여건에 달합니다.

미제침략군에 의한 생태환경의 파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미제침략군은 어제도 오늘도 우리 민중의 불행과 고통의 화근으로 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하루빨리 철수해야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주되는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6.15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기로 온 세계에 선포한 민족자주선언이고 통일지향선언입니다. 그런데 부시호전집단은 처음부터 6.15공동선언을 반대해나섰고 그 이행을 노골적으로 차단해보려고 필사발악하고 있습니다.

부시호전집단은 반북강경정책, 반북전쟁책동에 더욱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6.15공동선언이행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시는 이번 한국행각시 휴전선일대와 주한미군기지들에 찾아가 북침전쟁열을 고취하면서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제창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한반도에서 새 전쟁을 기어코 일으키려는 전쟁광신자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하겠습니다.

현실은 부시의 대북전쟁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지 않고서는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한미군은 나라의 분열의 장본인, 전쟁의 화근, 민중의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 민족통일을 가로막는 만악의 근원입니다.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오늘의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나라의 통일도 실현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반미자주화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 미제침략군을 이 땅에서 내쫓고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호전분자들의 북침전쟁책동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28일



이미 보도된 것처럼 한국합동참모본부는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경기도 여주와 이천, 남한강일대에서 군단급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힌데 이어 육군 2개 군단을 비롯한 공군과 국군 항공작전사령부 소대들이 참가한 가운데 28일부터 도하훈련을 포함한 각종 군사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호전분자들의 극악한 반민족반통일적인 정체를 보여주는 또하나의 용납못할 북침훈련책동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땅은 한미호전분자들이 지난 21일부터 벌여놓았던 대규모적인 북침전쟁연습인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군사훈련의 포연서린 연기도 채 가셔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호전분자들이 한미합동전쟁연습이 끝나기 바쁘게 연이어 북침전쟁연습을 벌여놓으면서 전쟁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니 이야말로 전쟁열에 환장한 전쟁광신자들의 히스테리적 망동이라 하겠습니다.

훈련규모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또 지역적으로 보나 이번 군사훈련이 북침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북침은 곧 전쟁이며 전쟁은 민족공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 국민과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이행을 통한 남북간의 화해와 민족의 단합으로 조국의 자주평화통일을 이룩할 것을 그토록 열망하고 있는 때에 이 땅의 호전분자들이 그에 역행하면서 미국의 북침전쟁연습책동에 편승하다 못해 또다시 전쟁연습소동을 벌여놓은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군당국자들의 이같은 책동은 오늘에 와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야합한 북침전쟁책동으로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분위기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해 오고 있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규모적인 한미합동전쟁연습이후 연이어 벌이고 있는 군당국자들의 북침전쟁연습 역시 그 일환인 것입니다.

이같은 사실만으로도 민족의 운명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미국에 빌붙어 전쟁책동에만 환장이 된 군당국자들의 극악한 반민족적, 반통일적 정체를 더욱 드러내 보인다 하겠습니다.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우리 민족을 공멸의 위기에 몰아넣으려는 군당국자들의 북침전쟁책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여러분은 이 땅의 호전분자들의 북침전쟁책동이 초래할 엄중한 악결과에 대해 똑바로 가려보고 일치단결로써 이를 저지파탄시켜야 할겁니다.

군당국은 대세의 흐름과 국민의 의지를 똑바로 보고 온 겨레의 더 큰 저주와 규탄을 받기 전에 반민족적인 북침전쟁책동을 당장 그만두어야 할겁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일보 반북히스테리적 발작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25일~26일

반민족매문지 조선일보의 반북히스테리적 발작이 날이 감에 따라 더해지고 있다.

얼마전 조선일보는 사설이라는데서 북에 있지도 않은 인권문제를 또다시 걸고 들었다. 사설은 북한 주민들의 참담한 인권문제만큼 남북관계에서 화급히 다루어야 할 사안은 없다느니 북한 인권문제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문제 못지 않은 중요한 일이라느니 대북지원 등에 북한 인권문제를 반드시 연계시켜야 한다느니 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이에 앞서 어느 한 사설에서는 한반도위기의 본질은 북한정권과 그들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자체에 있는 것이지 이를 위협으로 느끼는 9.11이후의 미국의 대응방식은 군사상 부차적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것은 조선일보야말로 동족도 모르고 오직 미국에 빌붙어 이북을 압살하는데만 미쳐 날뛰는 극악한 친미사대매국적, 반민족적 매문지라는 걸 다시한번 절감하게 한다.

인권문제를 든다면 인권이 가장 무참히 유린되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다. 미국이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쫓겨난 사실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극악한 반민족반통일악법에 의해 수많은 애국 학생들과 통일애국인사들이 철창속으로 끌려가 인권을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다. 반미자주를 외쳤다고 해서 테러분자로 몰려 끌려가고 생존권과 민주권리를 요구했다고 하여 집단이기주의, 불온분자로 낙인되어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약육강식의 법칙과 패륜패덕, 온갖 사회악이 판을 치는 속에 권세 없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버림받고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인권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제눈앞의 현실은 외면한채 민중중심의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만방에 그 빛을 뿌리는 존엄높은 이북을 걸고 든 것은 흑백을 전도한 파렴치한 궤변이며 이성적, 논리적 사고에서 이탈한 조선일보의 정신병을 다시금 스스로 드러내 놓은 것이다.

하긴 이북에서 세계적인 대걸작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까지 모독해 나섬으로써 우리 민족은 물론 국제적 망신까지 당한 조선일보이고 보면 그의 정신병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정세분석과 사물식별능력, 방향감각상실, 이제는 제 혈육도 분간하지 못하는 조선일보 정신병자집단을 그대로 두면 우리 민중이 이제 또 어떤 수모와 수치를 당할지 누가 알겠는가.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 청년학생들은 마땅히 조선일보반대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지펴올려야 한다. 지난해 조선일보반대투쟁에서 얻은 귀중한 교훈을 살려 조선일보구독거부, 조선일보입사거부, 조선일보투고거부 등 조선일보반대운동을 보다 심화시켜 강도높게 벌여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각계 민중과 굳게 연대해서 이 투쟁을 범국민적 투쟁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

노동자, 농민들 속에 깊이 들어가 조선일보가 저지른 반노동자, 반농민적 죄행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노농대중을 조선일보구독거부, 조선일보기자출입금지, 인터뷰금지 등 조선일보반대투쟁에로 이끌어주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난 1월 충북 옥천에서 전국의 조선일보바로보기운동가들의 모임인 ≪전국 몰총 독립군 결의다지기대회≫가 진행되어 조선일보반대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일 것을 결의한 조건에서 이 투쟁에 적극 지지동참하여 범국민적인 조선일보반대투쟁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선일보와 공생하는 친미사대매국노, 반통일역적 이회창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을 다같이 밀접히 결부하여 벌여나가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반민족적 행위로 미칠대로 미쳐버린 조선일보 매문집단과 역적 이회창을 기어이 매장해야 할 것이다.



테러방지법 ≪만들 필요 없다≫

국가인권위원장 국회의장 면담, 반대의견 제출


이만섭 국회의장에게 테러방지법 반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인권위 김창국 위원장과 유시춘 상임위원

국회에 계류중인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해 인권위원장이 직접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이 4일 오후 이만섭 국회의장을 방문, 테러방지법에 ≪문제의 소지가 많다≫며 국회 설득작업에 나선 것.

유시춘 상임위원과 함께 국회의장 면담에 나선 김창국 위원장은 ≪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으며 현존하는 다른법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이만섭 의장은 ≪나도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말을 들었다. 잘 해결되리라 믿는다≫며 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미리 준비한 총 4페이지 분량의 인권위원회 의견서 요약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인권위원회는 요약문을 통해 ▲기존의 법으로 대테러 예방과 처벌이 가능 ▲테러방지법 제정의 논리적 근거 빈약 ▲인권침해의 소지가 큼 ▲국가정보원의 월권이 가능해짐 ▲국가기관의 민주적 운영의 원리에 어긋남 등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5가지 이유를 들었다.

또한 인권위원회는 ▲공개토론을 통해 검증과정을 거칠 것 ▲위헌논란이 있는만큼 입법을 서두르지 말것 ▲법안의 전제조건부터 재검토해 입법여부를 결정할 것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김창국 위원장의 국회의장 방문 전, 인권위 유현 유시춘 상임위원은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를 찾아가 똑같은 요청을 한 바 있다. 면담에 나선 이재오 총무 역시 ≪오전에 기자들에게 이미 입장을 밝혔다. 문제점이 있는 만큼 대폭수정 내지 한시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테러방지법은 4월 임시국회의 여야 주요 쟁점 사안중의 하나로 정부와 여당은 ≪월드컵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테러방지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오히려 야당인 한나라당은 ≪폐지 내지, 월드컵 종료시 까지 한시법으로 하자≫는 주장으로 이에 맞서고 있는 실정.

여야는 8일 부터 열릴 임시국회에 앞서 총무회담을 통해 테러방지법등 핵심 사안에 대한 조율을 마칠 예정이다.

한편 인권위는 시민단체와 학계의 반대입장을 수용, 지난 2월 20일에도 테러방지법을 심의 중인 국회 정보위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김재중 기자
2002/04/04 디지털말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중지해야한다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1일



봄철에 들어서면서 생존권 쟁취를 위한 노동대중의 투쟁이 더 거세게 벌어지는 것과 함께 더욱 노골화되는 공안당국의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그건 늘어나는 구속노동자수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광주시에 살고 계시는 김현철씨의 글을 임기수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중지해야 한다≫.

구속노동자수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월 민주노총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구속된 노동운동가들과 노동자들의 수가 241명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불법파업혐의의 불구속입건자수까지 합하면 그 수는 600여명을 넘어선다고 한다. 간과할 수 없는 건 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을 비롯해서 노조지도자들과 핵심들이 징역형을 받았거나 아직도 구속중에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는 그 수가 날을 따라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사실이다.

알려진 것처럼 가스, 발전, 철도 3대 공기업의 공동파업기간에만도 김재길 철도노조위원장과 가스노조 박상욱위원장, 김준석 부위원장 등 많은 노조간부들과 수십명의 핵심들을 체포구속 하거나 수배중에 있다. 이것은 공안당국의 노동운동탄압책동이 날이 감에 따라 더욱 횡포해지고 있다는 걸 잘 보여준다 하겠다.

지금 우리 노동자들의 처지는 비참하기 이를데 없다. 미국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경제화로 인한 살인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인해 일터에서 쫓겨난 수백만의 실업자들과 800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다. 삶의 터전을 빼앗긴 수많은 노동자들의 가정들이 파탄되고 그 자녀들이 사회의 버림을 받으며 고아아닌 고아로 되어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앞날을 비관하여 자살의 길을 택하고 있는게 이 땅의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오늘의 처지를 두고 한탄도 하고 실날같은 한가닥 희망을 안고 청원도 해보았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더 많은 노동자들의 죽음뿐이었다. 드디어 노동자들은 그 어떤 환상이나 기대로써는 오늘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오직 투쟁으로써만 삶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 노동대중은 경향 각지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반대, 정리해고반대 등 생존권쟁취투쟁의 불길을 지펴올렸다. 이것은 자기 운명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투쟁으로 생존권을 쟁취하려는 우리 노동대중의 의지의 분출로써 지극히 정당하고 의로운 항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당국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집단이기주의, 폭력, 불법으로 몰아 탄압하고 수많은 노조간부들과 핵심들을 야수적으로 체포, 구속하고 있다.

공안당국의 이러한 탄압만행은 노동운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노동자들의 자주적 진출을 막아 눈앞에 박두한 월드컵과 지방선거 등 사회행사를 무난히 치루자는 간악한 파쇼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 어떤 야수적 탄압으로써도 우리 노동대중의 투쟁을 가로막을 수 없다.



공안당국이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에 광분하면 할수록 1300만 노동형제들은 민주노조의 주위에 굳게 뭉쳐 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지펴올릴 것이다.

공안당국은 노동대중의 이 투쟁의지를 똑바로 보고 민주화와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노동운동탄압책동을 당장 중지해야 할것이다. 만일 공안당국이 우리 노동대중의 이 경고를 무시하고 노동운동탄압에 계속 매어달린다면 더 큰 항거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당국은 노동운동탄압에 광분하고 있는 공안당국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구속된 노조간부들과 노동운동핵심들을 즉시 석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 1300만 노동대중은 공안당국의 탄압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 굳세어지는 강철같은 의지로 이를 단호히 분쇄해 나갈 겁니다.

파업의 불씨,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해설≫ - 발전노조 파업을 돌아본다



발전노조 파업을 두고 노동계와 정부의 칼날이 맞부딪히려는 순간, 양측은 가까스로 칼날을 거두어 들였다. 38일간이나 이어온 발전노조 파업은 이런 극적인 모습으로 종료됐다.

일단 국민들은 맞부딪히는 칼날의 섬광을 목격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정작 파업 당사자였던 발전 노조원들은 칼집으로 되돌아온 칼날을 원망하듯 바라보고 있다. 썩은 무도 찔러보지 못했다고 느끼는 모양이다.

그도 그럴것이 이 파업의 핵심적 요구사안은 ≪발전소 민영화 반대≫였으나 정부측의 완강한 입장에 밀려 일단 논의자체를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파업을 통해 얻은 이득보다 손실이 커보이는것도 사실이다.

발전노조를 대신해 협상테이블에 앉았던 민주노총도 이점을 우려하고 있다. ≪3.8일자 중노위 중재재정을 존중하여 발전소 민영화 관련 교섭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합의문을 두고 ≪이것은 말그대로 ≪민영화 수용≫이 아닌 ≪민영화 유보≫일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미 일부 언론과 정부측은 이 문구를 두고 ≪노동계의 민영화 수용≫으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시말해 ≪공공부문 민영화≫라는 화두를 가지고 벌어질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걸림돌 없이 내달리던 ≪민영화≫, 발목 잡혔다.

적어도 발전노조 파업으로 인해 국민들은 당연히 가야할 길로 믿었던 ≪민영화≫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여론조사 기관인 한길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국민 81%가 발전소를 매각하는 데 반대했으며, 86%가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미 공공부문 민영화에 착수, 별다른 반발없이 민영화를 추진중이던 정부로서는 궤도수정이 불가피 해졌다. 최소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끝날 것이라 믿었던 공공부문 민영화 문제를 두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실제로 협상을 진행하던 정부 당국자들은 ≪민영화 유보≫ 선에서 타협점을 찾으려 했으나 청와대가 강력히 반발해 협상이 늦어졌다는 후문이 나돌고 있다. 임기 말 ≪레임덕≫에 시달리고 있는 DJ가 순순히 물러서기 힘들었던 모양이다.

발전노조 파업은 과연 끝난 것인가?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은 3일 오전 명동성당 기자회견에서 ≪6일 오전 9시 전조합원은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이말은 사실상의 파업 종료 선언으로 받아들여 졌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조합원이 결정해 파업에 돌입한 만큼, 조합원의 결정으로 파업을 종료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조합원이 파업철회를 반대한다면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정확한 시점은 불투명하지만 6일 업무복귀 뒤 조합원 찬반투표가 치러질 전망이다. 현장에서 만난 노조원들이 ≪합의문≫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

정작 중요한것은 이번 노정합의가 ≪민영화 수용≫이 아닌 ≪민영화 유보≫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정부측이 민영화 드라이브를 다시 가동시킨다면 노동계는 언제든지 ≪총파업≫ 칼날을 빼들수 있다는 뜻이다. ≪합의문≫은 일단 정면충돌을 막기위한 제동장치에 불과할 뿐, 민영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의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영화 논쟁 원점으로 되돌려라

38일간의 발전노조 파업은 노조원 자신들에게 가장 큰 희생을 안겨줬다. 38일 동안 노동운동사 초유의 ≪산개투쟁≫을 위해 노조원들은 여관, 사우나, PC방 등을 전전해야 했으며 그 가족들은 남편없는 아내, 아버지없는 자식의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들에겐 승리의 ≪전과물≫이 아닌 휴전을 통한 ≪잠시 휴식≫이 주어졌을 뿐이다.

결국 모든것이 원점으로 되돌아 오고 말았다. 원점에서는 칼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 경쟁력과 민영화, 경제발전의 상관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 세가지 단어를 분명한 설명없이 남발해 마치 ≪민영화만이 살길≫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실존하는것처럼 몰아가서는 안된다.

≫공공부문 민영화≫는 우리 모두의 것을 개인의 것으로, 특정 회사의 것으로 되돌리는 일이다. ≪민영화 논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국민 대다수를 위해 다시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해야만 한다.

김재중 기자

2002/04/01 디지털말

울산노동계 지방선거 돌풍 일으킬까

울산의 노동계가 올해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돌풍을 일으킬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중심으로한 울산지역 노동계는 지난 98년 지방선거에서 2명의 기초단체장(구청장)과 광역.기초의원 등 무려 10명을 당선시키며 정치세력화하는데 성공했다.

올해 선거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위해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와 민주노동당울산시지부가 후보단일화를 위한 경선일정에 들어갔고 한국노총울산지역본부도 경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을 방침이다.

2일 현재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노동계 후보는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후보를 총망라해 40명 안팎이다.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와 민주노동당울산시지부가 후보단일화를 위해 조합원과 당원 총투표(경선)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1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모두 53명이 35개 시장, 구청장, 군수, 지방의원 자리에 도전하겠다고 등록했다.

이 가운데 복수등록자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동안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조합원 6만여명과 민주노동당울산시지부 당원 3천여명의 총투표를 통해 후보가 선출된다.

한국노총울산지역본부도 현재 지방선거 후보신청을 받고 있는데 5명 정도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단일후보든 한국노총 후보든 이번 선거에서 노동계 후보의 경쟁력은 지난번 지방선거 때보다 더 강해 보인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노동계 후보로 동구청장에 당선됐던 김창현(金昌鉉.40) 민주노당울산시지부장과 시민의 인지도가 높은 송철호(宋哲鎬.53) 변호사가 시장후보 경선에 참여해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본선경쟁력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노동계 후보가 차지하고 있는 북구청장과 동구청장 자리를 놓고 조승수(趙承洙.40) 현구청장과 이상범(李象範.45) 전시의원, 조규대(曺圭大) 시의원과 이갑용(李甲用) 전민주노총위원장 등이 각각 후보등록을 해 경선승리자의 본선경쟁력이 강하다.



특히 올해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후보단일화를 위해 총투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노동계가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근로자의 집단거주지인 북구와 동구에서 노동계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관계자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울산의 노동계 후보가 지난번 지방선거 때보다 더 많이 당선될 것≫이라며 ≪발전노조 등 노동자의 요구를 사회적 쟁점으로 최대한 부각시키는 등 노동자, 민중과 함께하는 선거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발 기자
2002/04/02 연합뉴스

충남지역 노동자 ≪독자 진보정당 필요 느껴≫

충남지역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독자정당이나 진보정당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 이 같은 사실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연말 대선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현행 정치구도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가 최근 조합원 543명을 대상으로 기초적 정치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일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당이나 진보정당 참여≫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44%가 참여할 뜻을 밝혔으며 ≪정당에 관계없이 친노동자후보를 지지한다≫는 답변도 13.1%를 차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7.1%가 독자진보정당의 필요성과 친노동자후보에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지정당은 응답자의 43.8%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기존정당으로는 한나라당 16.2%, 민주당 14.9%, 자민련 14%, 민주노동당 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노조 또는 충남노총 등 노동단체에서 지지후보를 결정하면 따를 것인가≫라는 질문에 41.3%가 반드시 따르겠다고 응답한 반면 개인지지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18.6%로 나타나 지도부의 결정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충남노총 관계자는 ≪지난 1998년 6.4지방선거를 시점으로 노동조합의 정치 참여가 허용된 만큼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지지 등 실질적 정치 참여 문제를 단계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태진 기자
2002/04/02 연합뉴스



6.15공동선언관철투쟁을 반미투쟁과 밀착시켜 벌이자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25일~26일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유진명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지금 미국과 민족분열주의세력은 서로 야합하여 북침을 겨냥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공동선언을 이행하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려는 우리 7천만 겨레의 지향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고 용납못할 범죄행위라 하지 않을수 없죠. 현실은 미국이야말로 조국통일의 암적 존재, 민족분열의 원흉임을 더욱 뚜렷이 실증해 주고 있어요. 마땅히 우리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실천투쟁을 벌여도 그것을 철두철미 반미반부시투쟁과 밀착시켜 진행해 나가야 할거예요. 이에 관해 얘기 나누려고 이렇게 자리 같이 했습니다.

유진명 : 6.15공동선언실천투쟁을 왜 반미투쟁과 밀착시켜 벌여야 하는가,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반미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6.15공동선언관철투쟁도 알찬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 이유는 지난날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미국이 우리 민족통일의 최대의 걸림돌이고 암적 존재로 되기 때문입니다. 민족분단으로 점철된 지난 57년의 장구한 역사는 미국이야말로 우리 겨레의 통일운동을 체계적으로 악랄하게 방해해온 원흉임을 실증해주고 있어요. 민족분단의 피눈물나는 날에 는 겨레의 통일지향을 담은 통일방안들이 나와 사람들의 가슴을 격동케하는 나날도 있고 통일열기로 남북 삼천리를 8월의 태양보다도 더 뜨겁게 달구어주던 그런 나날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민족의 통일운동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분단의 역사가 57년이라는 가슴 아픈 연륜을 새기게 된 건 다 미국때문이죠.

사회자 : 조국통일의 밝은 서광이 비쳐져 온 민족과 삼천리강토가 통일로 끓어번지던 1970년대초만을 돌이켜봐도 조국통일의 암적 존재로써의 미국의 정체를 생동히 알 수 있잖아요.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발표이후 모처럼 마련됐던 평화통일분위기가 깨지고 우리 겨레가 또다시 분열의 연대들을 지나오지 않으면 안되었던 건 미국의 대북침략정책과 민족분열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죠.

유진명 : 당시 미국은 겉으로는 공동성명을 지지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그 기본정신을 짓밟으려 도발적인 범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했어요. 미국은 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날 국무부 대변인 담화라는데서 주한미군을 축감할 계획이 없다며 남북사이의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고 당시 미국대통령이었던 닉슨은 미국은 한국에 대한 ****을 성실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런가하면 미국은 민족분열주의세력을 부추겨 공동성명의 정신을 뒤집어엎고 대결과 분열을 고취하는데로 나가게 했습니다.

사회자 : 마치 오늘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우리 민족의 통일진군길을 걸음마다 막아나서는 부시행정부의 반통일행위를 보는듯 싶습니다. 집권하기 바쁘게 대북강경을 떠벌이며 남북간의 화합을 차단하고 전쟁위기를 몰아온 부시행정부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이어져가던 민족의 혈맥이 다시 단절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 한반도는 행성 최대의 열점지역으로 세인들의 이목을 모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도 너무하다고 미국이 이제와서는 북을 두고 대량살상무기전시장이니 ≪악의 축≫이니 뭐니하는 악담을 늘어놓으며 우리 겨레에게 핵참화를 덮씌울 흉계밑에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같은 침략전쟁연습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잖아요.

오늘은 1970년대가 아니라 2000년대, 21세기입니다. 미국의 민족분열주의행위는 더이상 허용될 수 없어요. 이걸 더욱 똑똑히 새겨주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 청년학생들이 벌이는 투쟁 하나하나가 자못 중요하다 하겠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학생들이 앞으로 반미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언이랄까요, 계속 얘기 나눴으면 합니다.

유진명 :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학생들은 각계 민중들속에 반미자주의식을 더욱 깊게 심어주기 위한 투쟁을 끈기있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가슴을 반미의지로 가득 채우고 어떻게 하면 더많은 사람들을 반미투쟁현장에 목적의식적으로 나서게 하겠는지 하는 측면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새로운 투쟁작전들을 끊임없이 혁신하며 각종의 선전방식들을 능숙하게 활용해 나가야 할줄압니다. 특히 6.15공동선언이행을 차단시키는 부시행정부의 지난 1년간의 죄악을 놓고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각계층 민중을 반미투쟁에 궐기시키기 위한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6.15공동선언에 받들려 한반도에 펼쳐졌던 감동의 화폭들을 떠올리면서 거기서 통일조국의 주인은 우리 민중이기에 그 이행을 가로막은 미국의 범죄적 저의를 구체적으로 까발리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심장에 반미항전의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지난 2월 23일 서울 시립대학교에서 진행된 부시반대투쟁과 관련한 좌담회 참석자들도 일치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성조기소각, 미상공회의소와 보잉사 간판점거, 미국대사관에로의 진출과 같은 투쟁들은 국민들의 반미의지를 높여주고 대중운동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청년학생들은 이런 투쟁평가에 기초해서 반미항전을 보다 성대히 전개하는 것이 민중의 반미의지를 높여주고 반미의지를 과시하는데서 큰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진명 : 옳습니다. 침략전쟁연습이 끊임없이 감행되어 겨레의 통일지향이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호소, 선언적 투쟁보다도 다수의 대중적인 반미항전을 더욱더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학생들은 반미운동 하나를 벌여도 각계층 운동단체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보다 적극적으로 벌이고 여론전을 강력히 전개해 남북대화가 차단되고 남북내왕이 가로막힌 책임이 미국에 있고 대북강경정책에 있으니 반미항전과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강위력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여야 합니다.

사회자 : 우리 청년학생들이 선봉에 서서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실천투쟁을 반미투쟁과 밀착시켜 벌여갈 때 미국의 민족분열주의정책은 종파산의 운명을 면치 못할 거예요.

지금까지 좋은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민족단합의 대헌장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립된 개인의 힘에는 한계가 있지만 단결된 민중의 힘은 무한대한 능력과 활력을 가질 수 있죠. 이건 오랜 역사적 실천과정에서 검증된 불변의 진리죠.

우리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일찍이 민족의 생명선인 자주성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실현해나가야 한다는 독창적인 민족대단결사상을 제시하시고 온 겨레의 대단합에 조국통일의 결정적 담보가 있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주석님께서는 민족대단결사상을 구현하셔서 전쟁이냐 평화냐, 분열이냐 통일이냐 하는 엄혹한 시기였던 1993년 4월 조국통일의 강령적 기치인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민족단합의 대헌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죠.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민족대단결의 총적 목표와 이념적 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들이 뚜렷이 명시되어 있고 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위업을 달성하기 위한 근본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으로해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조국통일3대헌장의 하나로, 조국통일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 확고한 지침으로 되고 있는 것이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려는 건 7천만 겨레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안팎의 반통일세력들의 방해책동으로 인해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난관이 가로놓여 있어요. 이번에 미국은 얼토당토않게 이북을 ≪악의 축≫으로 몰아붙이면서 한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있고 이 땅의 반통일세력들은 외세에 아부굴종하면서 조국통일의 앞길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조국통일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은 엄중한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이 엄혹한 사태하에서 우리 민족이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서로 반목질시하며서 싸우게 된다면 결국 외세에 어부지리를 주고 민족전체가 그 희생물이 되리라는 건 너무도 자명한 이치라 하겠죠. 외세를 배격하고 조국을 통일해 민족의 자주성을 확립하기 위한 유일한 출로는 우리 민족의 확고한 주체의식을 갖고 굳게 단결해 투쟁하는데 있습니다. 역사적 경험과 오늘의 복잡한 현실이 보여주듯이 그 어떤 외세도 민족의 운명개척을 대신해 줄 수 없고 그건 오직 그 주인인 민족의 주체적 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위대한 주석님의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는 사상과 이념을 달리하는 남북의 온 겨레가 단결해서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이룩하려는 숭고한 뜻이 잘 세워져 있다 하겠습니다. 10대강령의 모든 내용들에는 민족의 공통된 지향과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따라서 그건 민족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민족단합과 애국애족의 위대한 이치죠.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주적이며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는 것이 전민족대단결의 총적목표라는 걸 천명하셨습니다. 우리 나라의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여건에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루는 방도는 현존하는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당각파,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구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또한 10대강령에서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을 민족대단결의 이념적 기초로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걸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반만년 역사를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은 어느 민족보다 애국심이 강하고 민족자주정신이 투철한 민족입니다. 7천만 겨레가 민족의 번영과 긍지를 간직하고 개인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연결시켜 민족애와 자주정신에 기초한다면 얼마든지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을 초월해서 전민족의 단합을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개별적인 계급계층도 민족의 한 부분인만큼 민족공동의 이익을 떠나서는 자기의 이익을 실현할 수 없죠. 만일 우리 민족이 서로의 차이점을 전면에 내세운다면 언제가도 화해와 통일을 실현하지 못할 겁니다. 남과 북이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전민족의 이익을 도모하는 원칙에 설 때 진정한 화해와 단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죠.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서 동족사이의 분열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하는 문제, 남침과 북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현시기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장애물을 극복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들에 대해서도 명백한 해명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현시기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국을 민족주체의 힘으로 타개하고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며 나아가서 민족의 융성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을 환히 밝힌 민족단합의 대헌장입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제시해주심으로써 우리 민족은 자기 운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개척해나갈 수 있는 민족단합의 위대한 기치,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됐어요.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통일을 앞당기는 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로 되고 분열을 추구하는 안팎의 반통일세력에게 있어서는 준엄한 철추로 되는 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민족대단결강령, 조국통일의 위대한 기치이죠. 우리 민족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영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과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길에 조국통일의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온 민족은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해서 뜻과 힘과 지혜를 합치고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을 위한 실천투쟁에서 민족적 단합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남북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수며 이 땅에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들을 걷어내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참가해야 할겁니다.

감사합니다.

조국통일과 민족대단결5대방침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30일~31일

6.15공동선언발표후 진행된 조국통일운동은 민족대단결만이 조국통일의 유일한 방도라는 걸 보여주었죠. 좋게 진전되던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놓이고 한반도에 냉기류가 흐르게 된 건 외세의 통일방해책동때문이라고 할겁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배아파하면서 극구 반대하고 있는 외세와 공조해서는 어느때가도 통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조국통일은 한핏줄을 나눈 우리 민족, 통일에 사활이 걸려 있는 우리 민족이 대단결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먼저 ≪조국통일과 민족대단결5대방침≫ 이런 제목으로 오일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민중은 민족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힘차게 벌이고 있습니다. 안팎의 반통일분열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인한 엄중한 난관이 앞을 막아도 우리 민중이 동요없이 조국통일의 한길을 힘차게 걷고 있는 것은 민족자주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위대한 헌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조국통일과 민족대단결5대방침≫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밝혀주신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헌장과 더불어 우리 민중이 통일도상에서 항구적으로 견지해야 할 민족자주통일의 위대한 헌장입니다.

민족지상의 과제인 조국통일을 실현하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야 합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국통일과 직결된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면 **김정일**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철저히 관철해야 합니다.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민족대단결실현에서 나서는 원칙과 그 이념적 기초와 목표, 방도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힌 민족대단결의 총서이며 자주통일의 헌장입니다.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첫째로 민족의 대단결을 철저히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이룩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민족대단결실현에서 나서는 근본원칙입니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해야 민족의 운명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민족대단결의 공고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민족의 운명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입니다. 역사적 경험은 민족이 자주성을 잃고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망국노의 운명을 면할 수 없다는 걸 웅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분열은 우리 민족내부의 모순에 의해 초래된 것이 아니라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것이므로 조국통일위업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민족자주위업으로 됩니다. 여기에는 외세가 간섭할 그 어떤 이유가 없으며 오직 우리 민족의 자주적 의사와 민족자체의 단결된 힘만이 요구됩니다.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대단결을 이룩할 때에만 우리 민족이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힘있는 추동력, 결정적 역량으로 될 수 있습니다.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둘째로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이념적 기초는 애국애족의 정신과 고유한 민족적 기질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으로써 자기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며 민족의 넋을 소중히 간직하고 이어나간 민족성이 강하고 단결력이 강한 민족입니다.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당연한 겁니다. 조국통일도 궁극에 가서는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며 전체 우리 민족이 통일된 하나의

조국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온 민족이 뜻을 합치고 하나로 단결하는 건 필수적이며 또 능히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셋째로 남과 북 사이의 관계를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오늘 남과 북 사이의 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땅의 역대 위정자들의 반북대결정책으로 인해 남북 사이에는 불신과 오해가 생겼고 남북관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반통일적인 반북대결정책이 계속되면 신뢰와 화해의 분위기를 마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외세와 공조하면서 동족을 적대시하고 반북대결정책을 계속 추구한다면 민중의 저주와 규탄을 받게 될 것이며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이남이 반북대결정책을 연북화해정책으로 전환한다면 남북관계가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될 것이며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실현에서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될 겁니다. 남과 북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기초위에서 우리 민족은 화합을 이룩하고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면서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합니다. 남과 북의 화합을 떠나서 민족대단결을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넷째로 민족대단결을 위해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야합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단죄하여 견결히 투쟁해야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분열시킨 외세가 우리 민족의 단결을 달가와하지 않는다는 건 자명한 이치죠. 우리의 대단결실현의 또하나의 장애물은 외세에 의존하여 자기의 잔명을 연장해가는 민족내부의 반통일세력입니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없이 남과 북의 단합과 민족대단결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다섯째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 해외 온 민족이 서로 내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발전시키고 연대연합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왕, 접촉, 대화의 발전 그리고 연대연합의 강화는 민족대단결실현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입니다. 민족내부에 비록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동포 모두가 자유로이



내왕하고 접촉하고 대화를 하며 연대연합을 강화해 나간다면 서로 이해와 신뢰를 두터이하고 통일이라는 민족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뜻과 힘을 합칠 수 있는 겁니다.

민족대단결5대방침의 정당성과 활력은 이미 실천을 통하여 확증되었습니다.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도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구현해 나갈 때에만 철저히 이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팎의 반통일세력들은 6.15공동선언을 휴지장으로 만들어보려고 날이 갈수록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을 지키는가 못지키는가 하는 것은 민족자주통일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현실은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을 발휘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더욱 굳게 단결하여 6.15공동선언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민족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민족대단결의 중심에 높이 모시고 있으므로 하여 미래를 낙관하고 있으며 민족자주통일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7천만 온 겨레는 민족자주통일의 위대한 헌장인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높이 받들고 성스러운 조국통일운동에 힘차게 동참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장군님이야기로 꽃을 피우네

작사 윤경남
작곡 전 권

한 가정 오붓이 모여앉아도
정다운 일터에 마주설 때도
꿈같은 그 소식 가슴 뜨거워
장군님 이야기로 꽃을 피우네

최전연 험준한 초소길에도
감자꽃 활짝 핀 밭머리에도
못잊을 그 사랑 남기신 자욱
장군님 이야기로 꽃을 피우네

아침엔 해빛이 전해준 소식
저녁엔 별빛이 전해준 소식
사랑의 전설로 새날이 흘러
장군님 이야기로 꽃을 피우네

아 저멀리 찾으신 곳 그려보며
장군님 이야기로 꽃을 피우네

주체91 3월 25일

한민족아리랑연합회 김성준씨가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그는 얼마전 동료들에게 평양에서 개막되게 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준비작업이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북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사상예술성에서나 규모에서나 손색없는 최고의 걸작으로 칭송되어왔다. 이번 ≪아리랑≫공연에서도 10만여명의 청소년학생들이 출연해서 온갖 조화를 다 부린다고 하니 상상만해도 황홀감을 금할 수 없다. 창조와 예술의 천재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모셨기에 이북은 세계적인 걸작품을 펴낼 수 있는 예술의 왕국으로 찬양되고 있다. 어서 빨리 통일이 되어 장군님을 통일광장에 높이 모시고 온 겨레가 함께 모여 ≪통일아리랑≫공연을 봤으면 좋겠다.≫

전국민중연대와 민주노총 등 42개 노동, 시민단체는 23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정부측에 발전소민영화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파업중인 발전노조원 2500여명이 서울 연세대에 집결해 복귀명령거부를 위한 철야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제2 공무원노조출범식이 23일 고려대에서 열렸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노조원 280여명은 23일 고려대에서 집회를 갖고 출범을 공식선언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21일 오전 서울대 본부 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대학본부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실시해 가결될 경우 총장사퇴운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의사협회는 21일 전국시도의사회장단회의와 국민건강수호추진위원회 회의를 잇따라 열고 다음달 17일 1차 의료계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소속 회원들이 22일 포항시 영덕군의 한 해변가에서 상륙훈련에 돌아치는 미군장갑차들을 몸으로 막아나서며 격렬한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한총련은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센타내 무역회관앞에서 가진 전국대학생 미국제품불매운동 기자회견에서 주권회복을 위해 미국상품불매운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격장의 땅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4000만원의 부당이득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재일동포 프로권투선수 홍창수씨가 23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진행된 세계권투이사회의 수퍼 플라이급 왕자방위전에서 일본 요코 가토히로선수를 완전히 넘어뜨리기로 타승하고 세계선수권을 또다시 보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에서는 이북을 방문하고 있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악단을 위해 24일 저녁 인민문화궁전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주체91 3월 26일

대구에 사는 재야인사 이정훈씨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정치력을 높이 격찬했습니다.

그는 지난 19일 동료들과 사업차 중국방문중에 중국 고찰단이 방북촬영한 ≪아리랑≫공연 광고장면을 본 소감에 대해 얘기를 나누면서 이북의 ≪아리랑≫공연을 볼 기회를 놓치면 일생을 두고 후회한다는 말이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직접 보지 않고서는 이북의 ≪아리랑≫공연에 대해 감히 말할 수 없다. 레이다조명과 환경을 배합한 배경판의 신비한 조화, 하늘을 날아다니는 공중기교, 세련되고 우아한 집단체조와 민족적 향취가 풍기는 노래와 춤. 정말 매 장면들이 체육과 예술, 최첨단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얼마나 신비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그 황홀함은 컴퓨터환상으로도 그려내지 못할 것이다.≫

그는 계속해 만사람이 하나의 음악에 맞추어 손색없는 집단율동으로 천만갈래의 기교를 펼쳐보이는 모습에서 일심일체를 이루고 있는 이북 민중의 단결된 위력과 조직력을 보았다며 이북의 ≪아리랑≫공연이야말로 **김정일**영도자님의 탁월한 정치지도력의 과시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미복귀노조원 4000여명을 해임대상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발전노조가 전조합원들에게 사직서제출을 지시하는 등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중연대의 주최로 ≪대북전쟁연습 한미군사훈련반대 및 한반도평화를 위한 국민집회≫가 23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각계에서 미국은 통일의 방해자, 전쟁의 화근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벌여놓은 이른바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훈련으로 인해 지금 이 땅은 전쟁터를 방불케하고 있다. 호전광부시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뒤 북에 대한 핵공격계획까지 짜놓고 벌여놓은 사상최대의 합동군사연습은 매우 위험천만한 것이다. 6.15공동선언이후 통일운동이 비상히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2개의 대규모 전쟁연습을 사상 처음 통합해 실시하고 있는 것은 통일운동에 찬물을 끼얹고 전쟁분위기를 고취하고 남북대결을 부추겨 자주통일을 기필코 막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의 길에 들어서고 통일기운이 높아질 때마다 이를 막아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해왔다. 미국이야말로 통일의 방해자이다.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그냥두고서는 통일을 이룩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반미반전투쟁을 더욱 강력히 벌여 미국을 이 땅에서 내쫓기 위한 의로운 길에 한사람같이 나서야 한다.≫

전국연합의 한 인사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핵태세 검토보고서≫작성이후 감행되는 이번 전쟁연습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매우 위험한 전쟁연습이다. 미국의 무모한 전쟁연습으로 인해 이 땅에는 핵전쟁의 먹구름이 밀려들고 있다. 50여년전 6.25전쟁을 도발하고 수백만명에 달하는 민간인들을 학살했던 미국이 이제는 핵전쟁을 도발해 우리 민족에게 핵참화까지 씌우려고 광분하고 있다. 끓어오르는 민족적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미국이야말로 전쟁의 화근이고 우리 민족과는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철천지원수이다. 우리는 미국의 무모한 핵전쟁도발책동을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핵전쟁광 부시의 전쟁도발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만일 불량아부시가 이 땅에서 북침핵전쟁을 도발한다면 남북이 힘을 합쳐 전쟁의 화근인 미국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해야 한다. 악의 뿌리 부시에게 죽음을 주어야 한다.≫

주체91 3월 27일

전국연합소속의 모 단체회원인 이성민씨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이씨는 최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동료들과 함께 시국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공격계획까지 짜놓고 압살하기 위한 비열한 공모를 다 꾸미고 있다. 그러나 북은 강경에는 초강경에로 대응한다는 기성의 배포유한 자세를 그대로 견지하면서 미국에 판판 맞서고 있다. 이것은 친미사대굴종의식에 물젖어 있는 이남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다.≫

그는 계속해서 북이 초강대국임을 자처하는 미국과 맞서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은 **김정일**장군님께서 일찍이 미국의 대북압살책동이 갈수록 오만하고 횡포해질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펴시어 나라의 군사력을 튼튼히 다져놓았기 때문이라면서 장군님을 모신 민족적 자긍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통일운동에 적극 나설 결의를 다졌습니다.

민주노총이 연대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26일 오후 서울 올림픽 역도경기장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정부가 발전노조파업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다음달 2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발전노조원들의 복귀시한으로 정한 25일 울산과 충남 보령 등지의 발전소에서 노조원 가족들의 출근저지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일제시기 군위안부생활을 강요당했던 할머니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청사앞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개정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였습니다.

참여연대 등 9개 시민단체관계자들은 3월 25일 최근 외압의혹이 일고 있는 차세대전투기의 기종선정과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당국이 이 단체 사무국장 등을 연행하고 청년학생들에 대한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23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25일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 통일특보가 내달초 특사로 북에 파견된다는 발표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남과 북이 합의한 특사파견은 미국의 6.15공동선언이행 방해책동을 분쇄하고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는 26일 연세대에서 연행한 발전노조원과 대학생 가운데 노조간부와 대학생 등 5명에 대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0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취한 미군장교가 접촉사고가 난 상대방 운전사를 차위에 매단채 달리는 만행을 감행해 주민들이 항의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 유연철씨에게 생일 90돌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에 참가한 대의원들이 26일 아침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시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26일 모스크바 크렘린 위수사령관 스뜨리긴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대통령악단이 경애하는 주석님께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주체91 3월 28일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3월 27일 이북을 방문하고 있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악단 단장인 모스크바 크렘린 위수사령관 세르게이 스뜨리긴 중장을 비롯한 악단의 지휘성원들과 주요배우들을 접견하셨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3월 27일 만수대예술극장에서 러시아연방 대통령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한민전≫ 중앙위원회는 25일 ≪전국민에게 드리는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발전노조파업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27일 정부에 조건없는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광주지역 시내버스노사협상이 결렬돼 노조가 28일 새벽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민가협회원들과 범청학련 남측본부 후원회 회원들, 덕성여대와 국민대 학생들이 지난 24일 국정원앞에서 애국청년학생들에 대한 탄압규탄 및 항의방문과 면회요구투쟁을 벌였습니다.

청년학생들과 사회단체 회원들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반대해 26일 국방부 청사안으로 밀고 들어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총련은 26일 대규모 합동군사훈련과 전투기도입, 연합토지관리계획체결 등 미국에 빌붙어 사대매국행위를 일삼고 있는 국방부의 비열한 처사를 규탄해 성명을 냈습니다.

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가 북침전쟁연습에 돌아치는 미군장갑차들을 막아나선 시위자들의 결사적인 투쟁을 지지해 성명을 냈습니다.

참여연대 등 9개 시민종교단체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가 발표한 차세대전투기선정 평가결과에 의혹을 제기하고 2단계 기종평가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통일연대의 김모씨가 대통령특사의 평양방문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 통일특보가 평양방문하기로 한 것은 남북관계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의미있는 조치인데도 한나라당이 무턱대고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라고 규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는 미국과 한나라당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에 의해 답보상태에 빠졌다. 특히 부시의 ≪악의 축≫발언과 북에 대한 핵공격계획, 대규모 북침을 위한 핵전쟁훈련으로 한반도에는 핵전쟁위기가 감돌아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민족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를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서 남북간의 합의에 따라 특사가 방북을 하는 것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한나라당패거리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추종해서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어보려는데 있는 것이다.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되든 당리당략만을 꾀하려는 한나라당은 국민과 전민족의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6.15공동선언이행을 파탄시키려는 이회창을 비롯한 한나라당패거리들은 민족과 함께 살 수 없는 역적의 무리가 분명한 것이다.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가 특사의 방북을 지지하고 있는데 유독 한나라당일당만이 이를 극력 반대하고 있으니 끓어오르는 민족적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전국민은 민족반역아 이회창일당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벌여야 한다.≫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진행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요해하기 위해 외국의 고찰단, 조사단들이 연이어 평양에 오고 있으며 그들은 세계적인 걸작품으로 완성되게 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일부 연습장면들을 보고 크나큰 감동을 표시하고 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태양절과 영웅적 조선인민군창건 70돌에 즈음해 3월 16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에 페루 츠클라이오종합대학에서는 영화

상영주간 개막식이, 우간다 민족문화회관에서는 태양절기념 사진전시월간 개막식이, 싱가포르 후라시아회사에서는 영화감상회가 진행됐습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규탄해 네팔 사회주의당이 23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체91 3월 29일

한민전 평양대표부 박광기대표는 전체 이남민중이 거족적인 반미반부시투쟁에 일어날 것을 호소하는 한민전 중앙위원회 서한이 발표된 것과 관련해 28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박광기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북을 ≪악의 축≫이라고 터무니없이 몰아붙이면서 반테러전쟁의 무대를 아프간으로부터 한반도에로 옮기려는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부시가 지난 2월 서울을 행각해 북침전쟁도발에 대해 최종점검한데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이 얼마전에 핵무기를 마음대로 사용하며 이북을 포함해 7개 나라를 핵공격대상국가로 지명한 것이 드러나 세계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런 속에서 사상 최대의 북침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해 전쟁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부시행정부의 이러한 책동이 반테러의 미명하에 버젓이 감행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는 미국이 반테러라는 **장을 내대고 북침전쟁도발에 광분하고 있지만 그로부터 얻을 것이란 수치와 파멸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민전은 민족의 생존과 존엄, 자주권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6.15공동선언을 끝까지 수호하고 이행해나갈 확고한 의지로부터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주동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중대 조치를 취했으며 그 일환으로 국민에게 보내는 서한을 발표했다면서 한민전 중앙위원회 서한을 낭독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이남에서 거세차게 벌어지는 반미반부시투쟁을 보여주는 녹화물이 방영됐습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 민가협, 전농,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한총련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범청학련관련 구속자 석방대책위원회≫가 26일 결성됐습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덕성여대 총학생회가 국정원의 청년학생탄압을 규탄해 25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 300여명이 29일 새벽 총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등 6개 시민단체는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F-15K≫기가 사실상 내정된 것과 관련해 최동진 국방부 획득실장을 28일 오전 직권남용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재일교포 신문 ≪민족시보≫ 3월 21일자가 ≪핵전쟁을 획책하는 미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28일 조총련의 조선대학교와 ≪금강산≫가극단에 거액의 배려금을 보내주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의 초청에 의해 이북을 공식 친선방문하는 인도네시아공화국 메가와티대통령이 28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 인도네시아공화국 메가와티 수카르노 뿌뜨리대통령이 28일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시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주체91 3월 30일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3월 29일 이북을 공식친선방문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메가와티 수카르노 뿌뜨리대통령과 만나셨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인도네시아공화국 메가와티 수카르노 뿌뜨리대통령이 3월 29일 선물을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전국여대학생대표자협의회와 부산의 ≪통일시대 젊은 벗≫은 정보원이 애국청년학생들을 악명높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몰아 탄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각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철도노조원 1500여명은 노조원 57명에 대한 고소고발철회 등을 요구해 3월 29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금속산업연맹 등 대규모 사업장이 민주노총 총파업에 가세하기로 하는 등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었습니다.

또 공공연맹 산하 사회보험노조 등과 화학연맹 산하 한국합섬 등도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보건의료노조의 경우는 서울대병원 등 대규모 병원노조들이 4월 2일 4시간 파업을 시작으로 3일부터는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한나라당패거리들이 이른바 ≪대북기본노선≫이라는 것을 꾸며내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안에 조직된 국가혁신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북의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원칙≫, ≪선평화 후교류협력의 원칙≫, ≪국토개발계획≫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대북기본노선≫이라는 것을 꾸며냈습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노선은 이회창일당이야말로 반민족적, 반통일적 집단이라는 것을 또다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의 총장실점거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대학등록금인상철회와 교육재정확보 등을 요구하며 서울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가진 대학생 3000여명은 명동 한빛은행앞까지 시위를 벌였습니다.

참여연대는 3월 28일 오후 차세대 전투기사업(F-X)과 관련해 국방부의 1단계 평가결과와 이를 승인한 국가안전보장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며 국방부 등에 정보공개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교조 교사들이 4월 2일 조퇴투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3월 26일 시민보행권보호를 위한 시민불편 노점상정비계획을 세우고 이달부터 4월 12일까지 시내 25개 자치구별로 선정한 버스정류소주변 등 시범정비구간 255곳의 노점상 2000여곳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전국노점상연합회를 비롯한 노점상관련단체들이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어 철거과정에 마찰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각계에서 반미반부시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부시를 조소하는 노래 ≪또라이 부시≫가 창작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체91 3월 31일

한민전 대변인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불후의 고전적 노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신지 20주년이 되는 것과 관련해 3월 30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을 비롯한 주요 TV 방송들이 지난 3월 26일 이북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준비소식을 보도했습니다.